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9.10 월호
1986 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충현교회

하루를 사는 지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시조 아담과 하와의 한 날의 범죄로 세상은 죄악 세상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한 날의 십자가로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한 날의 큰 사건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면 어찌 한 날을 경홀히 여길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날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있게 살아야 하는데 하루를 세 때로 나누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아침은 준비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아침에는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려고 준비하여야 하겠다. 한 날을 우울하게 생각하면 그 날 전체가 우울하고 한 날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날 전체가 감사하게 된다.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감사할 조건이 많으므로 주신 복을 세어 보면서 유쾌한 생활을 하려고 한 날을 준비하면 그 한 날이 유쾌해진다.

아침에는 신령한 힘을 얻어 능력있게 하루를 살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큰 나무를 찍으려면 큰 도끼로 찍어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와 죄악과 싸우려 할 때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와 힘을 얻어 출발하는 아침을 가져야 한다.

낮에는 부지런히 일터에서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육신의 일터에서 일하되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진실되게 일해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신임을 얻고, 기술이 최고로 발전하고 생활도 여유있게 된다.

저녁은 반성하는 때로 삼아야 한다.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사람 앞에 실수를 하거나 앓았는가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한 날의 생활을 반성하고 회개를 한 후에야 베개를 끌어 당겨서 베고 잘 줄을 알아야 한다.

범죄한 사람이 지옥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가는 것이니 내가 범죄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닭우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 회개하면 된다. 오늘날에도 닭 울음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 친구의 충고, 혹은 무엇을 보는 중 내 마음에 찢리는 것은 베드로를 향하여 울었던 닭 울음소리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하루 하루를 준비, 충성, 반성을 계속하며 뜻있게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되었으면 좋겠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9.10 월호

차례

권두언 / 하루를 사는 지혜	주 간.. 2
이달의 말씀 / 우리 생애의 소원	김창인.. 4

특집 I

· 김창인 목사 「예식과 설교」 출판기념 감사예배	편집실.. 6
· 김창인 목사와 충현교회	홍치모.. 30

특집 II

해외여행보고	
· 보dana은 성전건축을 위하여(2)	이정우.. 32
· 교회설립 33주년 회고	손경수.. 38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좌 / 사도신경총론 V	임종만.. 40
충현칼럼 /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	조선근.. 21

독자 투고

눈을 들어 받을 보라	박석순.. 42
-------------------	----------

추천 도서

· 복음서, 바울서신 설교집	편집실.. 44
·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	윤대곤.. 45
선교지 소식	세계선교회.. 46
교회 소식	편집실.. 48
교우 동정	편집실.. 52
9·10월의 행사 · 편집후기	편집실.. 54

월간 충현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 14권 제 5호
통권 제 136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임
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
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
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
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 표지 사진 설명 □



김창인 목사의 예식과
설교 출판기념 감사예배
를 드리고 김창인 목사님
과 사모님이, 은사이신 한
경직 목사님과 박윤선 목
사님을 모시고 축하케익
을 자르시는 모습.

우리 생애의 소원

빌립보서 1장 19—30절

김 창 인
(목사·당회장)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빌 1:20)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소원이면 깨끗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한 소원이라면 더럽습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자의 소원이라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욕심을 떠나고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소원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소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 만사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빌 1:20)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대하든지 부끄럽게 끝나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면서 일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죽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망신스럽고, 천대를 받는데,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꿈에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숨긴 죄가 없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숨었던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망신을 합니다. 죄를 범하고 숨겨 놓았던 것이 드러나는 날에 ‘아무개가 그 짓을 했구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죄인은 죄 값으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고, 범한 죄는

1초도 어김 없이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사슬에 결박을 당한 자는 사람 보기에조차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둘째로, 책임을 충실히 감당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일학교 교사님이면 교사님으로, 찬양 대원이면 찬양 대원으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책임을 다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살면서 일하다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째로, 이겨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싸움에 지거나, 운동 경기에 진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겨야 합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마를 이기고, 이기는 사람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대하나 사람을 대하나, 사랑하는 성도를 대하나 미워하는 악마 원수를 대하나, 나는 망신을 당하지 않고 죽어야겠다’ 이것이 소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전혀 없고 칭찬만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항상 담대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빌 1:20)

언제든지 우물쭈물하는 우유부단한 자도 아니고, 원수가 무서워서 후퇴하는 약자도 아니고, 아무 데라도 겁낼 것없이 갈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담대에는 어리석은 자의 담대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담대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담대는 자기가 자신을 믿고 담대합니다. '내가 그것을 못해?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어리석은 자의 담대는 다른 사람을 믿고 담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야' 다른 사람을 믿고 담대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담대는 세상을 몰라서 담대합니다.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을 모르고 마중을 나갑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담대는 기한 전에 멸망을 자초하고 맙니다. 망신이요 불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의 준비없이 호언장담하는 담대는 꿈에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고 거대한 담대, 어리석은 바보의 담대가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까?

준비한 자의 담대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철 것을 미리 준비한 학생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담대합니다.

신자는 미리 떨고 준비하였다가 정작 일을 맞이할 때는 웃어야 합니다. 시험을 몇 달 후에 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떨면서 1초의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하였다가 정작 시험장에 들어가 앉으면 '어~이거 나왔구나' 시험장에서 웃는 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미리 떨어야 합니다. 미리 떠는 사람은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미리 떠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해 놓습니다. 준비한 사람의 담대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에 죽음을 준비하고, 편할 때에 환난을 준비하고, 젊었을 때 죽음과 환난을 미리 준비하고,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셔도 마중나갈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를 잘 한 사람은 언제든지 담대합니다.

3.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생을 살기로 소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빌 1:20)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인간은 죽을 장소도 모르고, 죽을 시간도 모르고, 죽음의 형편도 모르지만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어 인생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죄인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행한 일은 한 가지도 잊지 않고 기록해 놓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한 것을 인간들이 오해하고 나를 중상 모략해도, 상급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괴로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춤을 추고 다니고, 인간적으로 즐거워도 하나님께 욕이 되면 가슴치고 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돈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시집장가를 잘 가는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게 다 권사야' 하는 말을 들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언제 죽음을 만나도 웃으면서 담대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총이 가슴에 와 달아도 '형님! 예수 믿읍시다' 전도하는 담대한 인생이 부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돌린 김창인 목사 예식과 설교 출판모임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예식과 설교」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1986년 10월 9일 시내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한경직 목사, 박윤선 목사 등 한국 교계 지도자급 원로 목사들과 교계 인사들 그리고 본교회 교우들이 참석하여 「예식과 설교」 출판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저자인 김창인 목사를 위로하고 축하하였다. 그날의 역사적인 모임에서 진행된 내용을 특별 지상중계로 소개한다.

—편집부—



사회자 : <신성종 목사>

김창인 목사님의 성역 50주년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예식과 설교」의 출판을 우리 모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회 중 : 묵도<주악>

사회자 :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니이다(시 119 : 103)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 : 105)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9년 전에 이 땅에 김창인 목사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동안 사랑하는 종을 50년간 주의 사역에 일하게 하심으로 이변에 귀한 예식서를 출판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의 감사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교회에 큰 유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자 : 다같이 찬송가 340장을 부릅시다. 순서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 중 : 340장 찬송

사회자 :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되시는 한 경직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 <한경직 목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백년 전에 많은 일꾼들을 외국으로부터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귀한 종을 보내주시는 가운데 또한 일찌기 김창인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이북, 이남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 이 민족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여러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함을 드리는 것은 이 귀한 종을 통해서 여러가지 면으로 복음을 전파하신 것도 저희들이 기억하지만 특별히 귀한 「예



식과 설교」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출판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복음이 여러 곳까지 확대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원컨대 사랑하는 종의 온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몸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또 이 종이 땀 흘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키워오신 충현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과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꿈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서 북한 동포들도 주님께 나와서 자유로이 예배드릴 수 있는 통일의 날도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전 아시아와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뜻있는 시간에 하늘문을 넓게 열어 댈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이 귀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크신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전 한국 교회 위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순서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사랑하시는 종님과 그 가족과 그 사랑하시는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부족한 죄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주>

사회자 : 이 시간에는 합동 신학원 학장이면서
충현교회 협동목사이신 윤영탁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봉독 : <윤영탁 목사>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
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
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회자 : 이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인
박성원 교수님이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특 송 : 박성원 교수

사회자 : 합동 신학원 명예 원장으로 계시고 개
인적으로 김창인 목사님의 은사되시는 박운선
목사님이 「저술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교 : <박운선 목사>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제목을 '저술의
중요성'으로 잡았습니다. 저술이라고 하면은 어
떠한 저술이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저술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저술이 왜 중요한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책
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
겠습니까? 성경은 단편적인 격언집이거나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
더서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31절 말씀에 "오
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을 알리는 이 메시지는 우리 믿는
자들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셔야 살고 또 언제든지 하
나님이 사람의 사는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이것이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신약 저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며 하나님이
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구약 말
씀의 성취입니다. 몇 천년 전에 한 마디 한 말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
리는 녹아질 정도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
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하여 구약 성
경은 여러 천 년전에 혹은 여러 백년 전에 한 가
지 일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456가지의 건(件)
으로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예언 성취로 오신 분이요
우리가 그 분을 믿는 데 있어서 찬송하면서 믿
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매 페이지에 이 사건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
로 사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그리스도 사건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와같은 사실을 볼 때 사람들이 찬송하
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찬송하기 마련이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일어날 기쁜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털끝만큼의 의심도 용납치 않을 위대
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성경의 이 기록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은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로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둘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 진
리를 깨달은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는 것입니다.

저술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
경은 학문으로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학문
으로 깨닫는 성경은 포장하는 정도라 생각합

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깊은 맛을 보게 되는 길은 순종과 고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맛을 볼 자는 없습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순종이니 은혜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상 순종해 놓고 보면 거기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움과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참 죽을 판 살 판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노력을 해서 뒤에 깨달아지는 것은 노력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 노력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깨닫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말만해도 부담스럽고 피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처럼 반가운 선생이 없고 반가운 지도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같이 여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달은 책들은 모두 다 고난을 당하면서 쓴 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므로 말미암아 글을 쓰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결국에 가서 고난은 하나님이 견디게 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마음이 움적어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밝히 깨달아지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천로역정이라고 합니다. 그 책은 요한 번년이 옥 중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구라파 대륙에서 칼빈주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또 미주에서도 많은 개혁신주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고백서, 또 붙어있는 주석서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영주가 세운 대학에서 쓰게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도시의 영주 프베르릭 Ⅷ세 그 자신이 칼빈주의 파수자로서 독일황제의 압박과 많



은 괴롭힘을 받으면서도 변절하지 아니했읍니다. 그가 초청한 교수 중에 두 사람이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고백과 그 주석을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읍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울시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교수가 그때 삼엄한 압박 가운데서 그야말로 언제든지 고난을 각오하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내놓게 된 것이고 또 이 고백서에 대해서 방대한 주석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와같이 존경하는 김창인 목사님의 저서들을 생각하면서 모이게 된 것인데 사람을 칭찬해서가 아니라 그 분은 웃는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각오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장도 역임하시고 또 많은 대회와 지도자로 다니시면서 꽃다발도 받으시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분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두고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토록 고난을 각오하는 종을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믿읍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김창인 목사님의 약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말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교자가 언급할 필요는 없으나 한 두 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해방 전에 삼팔선을 넘다가 체포되어서 도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체포되어 가지고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남으로 내려와서도 석울

의 어떤 이층집에서 지낼 때에 인민군이 잡으러 왔을 때에도 “나는 예수교 전도사”라고 그는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그는 늘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잘 나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언제나 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와같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믿는 신앙을 전하게 된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각오하고 있으며 또 고난을 받았으며 변치 않는 수난의 지조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에게는 설교가 샘 솟듯 하고, 또 글로서도 영구히 전할 수 있는 옥고를 많이 내놓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우리 못난 사람들도 은혜라는 것은 저런 것이라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성경을 깨달게 된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같이 귀한 일을 위해 모이신 청중 앞에서 이 부족한 사람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술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째는 사도들이 저술한 이 말씀 곧 성경이 얼마나 귀한가,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성경을 깨달아서 펴내고 저술로 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은, 이 모든 저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자 : 충현교회 출판국장으로서 계시는 조현명 장로님이 나오셔서 김창인 목사님의 약력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순서지 4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력소개 : 〈조현명 장로〉 김창인 목사님 약력소개 및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인 목사님의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김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발자취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의 찬연한 경력과 허다한 업적을 빠짐없이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개드려야 마

땅할 일이 빠진대거나 해서 도리어 욕되시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점 너그러운 이해하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창인 목사님께서서는 1917년 11월 18일 지금은 한 많은 이북의 땅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에서 기독교인인 부친 김택연씨, 모친 김택신 여사의 5형제 중 3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어릴 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환담하실 때 들으시기로 하고 저는 목사님의 청년기부터의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1936년 장로교 전도사로 의주군 주내면 청전 교회에서 정식으로 목회 일생이 시작되어 용천군 동산면에서 성동교회를 거쳐 1937년 월화면 주봉동 해천교회에서 시무하셨습니다. 1938년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신사참배 강요를 더욱 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기신 목사의 지도하에 조직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는데 이 반대운동이 확대되자 일제는 1940년 7월 전국적으로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검거하기에 이르렀고 이때 김 목사님은 만주로 피신하여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조국 광복의 날 민족적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고 귀국하여 김인회 전도사 중심의 이북 재건운동에 참여하여 평북 만포읍 황해도 황주에서 재건교회를 설립 시무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1946년 11월 3일 주일 선거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기독교 연맹구성 공민증 발급 등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핍박하여 김 목사님은 7차례나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수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후 월남한 친구들과 교인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마침내 1948년 12월에 월남하여 서울 장충동에 서울 재건교회를 설립하고 시무하셨습니다. 1950년 6·25동란이 일어나자 부산으로 내려 가시어 부산 동일교회를 설립하시어 시무하셨고 1953년 서울 수복과 함께 상경하여 현 충현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후 1956년 고려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1957년 고신측 경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셨고 1965년 경인노회장을 역임하셨고 1970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장에 피선되었으며 여의도 집회의 80세계 복음화 대회 대회장과 엑스

플로 85 대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1960년 경찰관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전국 경목 위원회를 설립 초대 위원장으로 삼년을 중임 하였고 이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4년에 강남구 역삼동에 새 성전으로 이사하여 충현교회의 새 시대를 맞게 하셨습니다. 현재 86, 88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 총재, 세계 C.E명에 대회장, 성서공회 이사장, 북한 선교원 이사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김 목사님은 보수주의 신학에 근거한 감화력 깊은 설교가로 목회의 성공자로 평가받고 계시며 많은 부흥 사경회를 인도하셔서 부흥목사로 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이념은 하나님 영광 중심의 경건 생활입니다. 목사님은 여러 공적 활동에도 항상 후진과 현역들을 위하여 저술에 힘을 쓰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비롯한 14종의 저술은 그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길을 터가는 등대로 오늘을 영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었고 목사님은 지금도 존각을 다투어서 귀중한 저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중 「예식과 설교」는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 현장에서 다듬어진 주옥같은 예식 설교집이 될 것입니다.

한편 목사님의 가정 사정을 살펴 볼 때 목사님의 대성을 뒷바라지 해오신 부인 박명식 여사님의 숨은 내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3남 3녀의 자녀를 두시고 이 자녀 중에서 10명의 자손이 장성하여 수학 중에 있습니다. 장남 성주씨는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하였고 차남 성관씨는 미국에서 은행 중역으로 성공하였고 삼남 성호씨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녀 영신씨는 출가하여 현재 한남 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그 부군 문한규씨는 공학박사로 한국 표준 연구소의 요직에 있습니다. 차녀 혜신씨도 출가했으며 그 부군 김병구씨와 같이 미국에서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녀 성숙씨는 부군 김인철씨와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경력에 대해서 그 줄거리를 더 들여 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김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에는 일찌기 예수를 믿은

부모님, 한국교회에 큰 발자국을 남긴 이기선 목사님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인 친구들 덕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와같이 겸손한 생각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김목사님 본보기로 오늘 목사님의 출판을 경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이 시간에는 「예식과 설교」에 대한 서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 총신대학 학장이신 김희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신촌 성결교회 당회장인 정진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평(Ⅰ) : 〈김희보 목사〉

김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충현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이름난 대교회가 되었는데 그 대교회가 된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예식을 경건히 집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의 한 부분이, 아마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좋겠습니다. 이 책에 거의 수록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교회의 의식, 경건의 의식에 있어서 앞으로 21세기, 100년을 지나간 우리 한국 교회에 공헌이 많을 것으로 알아서 먼저 서평에 앞서서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보시는대로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정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가 있고 기타 예배가 3부로 갈리어 있는데 어느 예배이나 시작에서 끝마무리까지 아주 성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예배가 목적의식이 분명한 것을 봅니다. 그 목적의식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경건하게 집행해야 되겠다하는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의식의 경건성, 또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도록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의식입니다. 예배 때에는 신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오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교회 의식을 경건하게 집행하므로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따음이 일어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로서는 참 귀감을 삼아야 할 귀한 교훈의 말씀들인 줄 압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일평생 잊을 수 없도록 큰 인상을 주어야 하겠다' 하는 그야말로 깊은 성의를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세심한 주의와 성심성의를 다 하는 그와 같은 목회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 충현교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이 예식서를 주욱 — 읽어 볼 때에 그러한 분위기와 흔적을 매 페이지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구분이 분명합니다. 흔히 목사들은 의식이 지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의식에 앞서서 얼마나 성의를 다하는지, 여러분, 여기 결혼예식 주례를 보면은 30분전, 10분전, 3분전, 이렇게 나옵니다. 30분전 부터 앞으로 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30분 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만 책에 보면 30분 전에는 어떻게야 되고 3분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본론 뿐만 아니고 모든 예식의 집행에 있어서 그 서론이, 그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고 세밀한가 하는 것은 한국의 목회자들 우리 후배들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고 또 아름다운 모범도 되는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 순서가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서론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본론에 예식을 경건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데에 액센트를 두어가지고 이 모든 예식이 진행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본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결론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 예식이 어떻게 해서든지 결실을 맺어야 하겠다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장례식 순서를 보면은 처음에 임종예배부터 시작해서 입관, 발인, 위로, 추모예배, 이장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예식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전도가 되고 본인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인 것을 볼 때에 이 책이 큰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뿐 아니라 많은 본이 될 것으로 알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 예식을 지나면서 끝까지 간단하게 설교의 요지가 기록되고 심지어 기도문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특별히 결혼식같은 데서 축복에 관한 기도를 성의껏 해 드리는

이런 일도 본인에게 일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순서가 진행되게 한 점으로 참고하는 사람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책에 강점을 둔 것은 장례식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전 책의 5/1이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쓰여졌읍니다. 목사님의 주례를 받은 가정이나 교회는 특별히 어려운 장례를 치루는 가족들은 도저히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서 존경하는 목사님을 위해 배후에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로 성장하니 이것은 훌륭한 예식을 통해서 얻은 결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뒷 순서도 많아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는 줄 압니다만 특별히 이 책은 저자가 10여권의 책을 출판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으로 그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한국 교회의 예식을 경건하게 지키면 좋겠다는 소원에서 특별히 이 예식서에 정성을 다한 줄 압니다.

책이라는 것은 읽으면 반드시 부족이 있고 오자 하나라도 있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있으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혹 그러한 결함이 없는가 더듬어 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자 한 자라도 발견을 못했읍니다. 그러니 이 책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인 책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책을 이용하시는 분도 정성을 다해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평(II) : 〈정진정 목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가운데는 한 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설교하는 교역자도 계시고 또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의 가장 어려운 과제가 무엇인가 할 때에 대다수의 목회자는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예외없이 한 주일에 한 번은 가벼워질 때가 있고 한 번은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끝내고 단에서 내려올 때에 우리의 어깨는 가벼워지고, 그러나 하룻밤을 지내고 월요일 밤이 되면 다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음 주일 설교할 설교 준비 때문이옵시다. 목사에게 설교는 특권이면서 매일 무거운 과제임에 틀림없읍니다. 특히 목회자는 양을 먹이고 기르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

신 순위에 놓아야 할 과제는 역시 양을 먹이는 일 영적 양식을 먹이는 강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일은 거의 상식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설교든간에 설교만은 상식으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깊은 영적인 체험과 확실한 신념과 확고한 사상에서 우리나라 설교여야 하기 때문에 예식 설교이든 일반 설교를 하든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변하는 상황이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설교는 어렵습니다. 목회자는 일반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예식을 집행하고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하는데 때때로 목회의 경험의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 예식 설교는 어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김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이 어려워하는 예식 집행과 또 거기에 맞는 설교집을 출판한 데 대해서 우리의 어려운 점을 덜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또 부흥사이면서 깊이 있는 설교가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동안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저서를 냈습니다. 또 교직자를 위한, 제직을 위한 교재도 만들어 내시고 또 평신도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책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그의 풍부한 경험을 정리한 「예식과 설교」라는 특이하고 무게있는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저는 설교집이라기 보다 목회자를 위한 실천신학 부분의 한 교과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책은 500여 페이지의 많은 지면을 할애한 큰 책으로서 그 내용은 아까 김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대개 서너장으로 구별했습니다. 1장은 결혼 약혼 회갑 등으로 가정 예식 중심으로 묶었고 또 제2장은 교회 예식으로서 성례전, 임직식, 장례식 그리고 교회 봉헌 등 기타 예식에 대해 자세히 실었습니다. 3장에 와서는 설교사 파송을 위시해서 장학금수여, 또는 교회와 기관이 결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식들을 소상하게 서술해 주신 책이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특색을 몇 가지만 꼽아본다면 저자께서 머리말에 언급하신 대로 어떤 예식이든지 그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사항, 그 진행 과정, 그리고 예식을 마치고 처리해야 될 일까지 그 방법을 세밀하게 상세하게 제시해준 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때때로 여러 예식을 진행하면서 그 예식의 내용에만 신경을 쓰고 전후의 일 처리를 소홀히 해온 우리들에게는 큰 교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책이 우리 손에 쥐어진 일은 경하할 일이라 생각되고 또 이 책의 특색은 예식의 목적과 초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예식이든 그 예식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특색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예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는 예식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 주었고 또 예식의 경건성을 강조한 점입니다. 주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참석자들과 당사자들이 언제나 경건한 자세로 예식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관성인 경건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식마다 그것에 맞는 설교를 한 두편 넣어준 것은 앞으로 이 책을 읽으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교집이 나왔습니다. 목회에 관한 서적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처럼 예식과 설교를 조화시킨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 책은 많은 기성목회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많은 신학도들에게도 실천 신학에 필요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믿어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칩니다.

사회자: 용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호준 목사님이 나오셔서 격려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격려사: <유호준 목사>

저에게는 격려사라는 제목으로 부탁을 하셨고 또 다음 분에게는 축하라고 하는 것으로 부탁을 하셨는데 얼른 구별하기 어려운 술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촌에서는 열 닷새라고 하고 서울에서는 보름이라고 하는데 열 닷새하고 보름하고는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사와 축하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 제 다음에 세 분이 나오셔서 격려사라는 명목으로 아마 축하도 하시고 격려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첩되지 않기 위해서 축사는 다음 분으로 맡기고 저는 격려사라는 각도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 고사에 송무백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무성하나까 옆에 있는 잣나무가 기뻐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김창인 목사님이 교역을 시작하신 해가 1936년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교역을 출발한 것이 같은 해 1936년 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0년, 또 김창인 목사님께서 교역 5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 전에 연령이 차서 3년 전에 은퇴를 했고, 김 목사님께서 아직 은퇴를 안하시고 현역으로 일하시면서 그런 좋은 일을 통해서 영예스러운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데서 잣나무 입장에서 축하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김창인 목사님께서나, 여기 환경적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이런 말을 하기는 미안하지만 이제 70고개를 넘는다고 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늙은이라고 말하자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늙은 사람들에게 오는 감회란 외로움을 느

끼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한창 일할 때 하고 젊어서 하던 일을 늙어 노약해서 못하고 그리고서는 조용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몸은 편할런지 몰라도 마음은 편하지 못합니다.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차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씀은 제게나 여기 계신 김창인 목사님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도 늙어서 백발이 성성해지면 이제 나는 팬찮은 것같은데 다른 사람은 늙었다고 그리고 또 나는 할 수 있는 것같은데 다른 이들이 맡겨 주지를 않는 그와 같은 일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김목사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위로와 가지시고 또한 힘을 얻으시고 이제까지 해오셨던 일이 사들들 사회에서는 약간 ‘저렇게까지 일을 안하셔도 될텐데’ 하는 외로움을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일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대부분의 교우 가운데 아마 충현교회에서 많이 오셨을 줄 압니다. 교우 여러분께 한바다 격려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발표하는 「예식과 설교」라는 서책은 김 목사님께서 이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집필하신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김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나누던 것을 수록하여 오늘에 결과적으로 한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김 목사님께서 그 책을 적어내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책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김 목사님은 함께 생활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생활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에서 경조 간에 이 말씀으

로 위로를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받은 소망을 굳게 지켜서 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영광과 즐거움으로 지내시기를 바라는 뜻이 있어서 격려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이제는 세 분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사를 해 주시겠는데 먼저는 전 한신 대학 학장이신 조향록 목사님, 다음에는 현재 루터 신학교 교장이신 지원상 목사님, 그리고 전 성서공회 이사장이신 이영찬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축사(Ⅰ) : 〈조향록 목사〉

글을 쓰는 분이 글쓰는 재주로 글쓰는 분이 있고 또 영혼으로 글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도 말재주로 설교를 하는 분이 있고 영혼으로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 창인 목사님은 영혼으로 설교하여 그 설교가 담겨진 설교집은 영혼의 글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저술을 통해서 목사님이 체험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2,3년 전에 충현교회 시작의 상황을 다른 목

사님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교파가 다른 분인데 하루 밤을 자고 나니까 자기네 예배당 옆에 천막을 치고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붙였더라 합니다. 그래 누군지 몰라서 찾으니까 전도사가 나타났는데 그 분이 김창인 목사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보시오. 아무리 개척 교회를 해도 예배당 벽에 천막을 치는 분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까 이 분이 하시는 말이

“예배당 짓는 것이 술집이 들어서는 것보다 낫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요. 그래 자기 말이

“참 염치도 없는 사람이다”

고 했습니다.

그래 당사자 되는 목사님이, 그이도 노인이신데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김창인 목사님의 염치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미치는 일 때까지 전념하는 그 일이 오늘에 충현교회를 이루었다고 감격해 하면서 둘이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했는지 기억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삼동으로 나가면 2,3년 동안 완공되지 못한 충현교회를 보실 것입니다



다. 지도 가끔 다니며 봅니다.

저는 충현교회를 볼 때마다 '김창인 목사님은 일을 하면 빨라야 백년 후에 완공 될 일을 하정한 2,3십년 안에 땀작 지어 놓은 판자집 같은 그런 집은 안지를 것이라' 제 진심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 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노틀담 사원을 시작해서 완공까지 사백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큰 그릇으로 한국교회에 김창인 목사님을 보내 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공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김창인 목사님같이 잘난 양반이 다른 것을 해도 대성할 일을 했을 분인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생을 고지식하게 결단을 팔지 않고 복음을 위해 평생을 순종하고 바친 것을 만공에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또 충현교회가 당회를 중심으로 이런 귀한 사업을,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설교한 것을 책으로 엮어서 후학들과 동역자들에게 그 체험을 함께 나누려고 수고하고 봉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귀교회 당회와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마땅할 줄 압니다.

다음에 말씀하실 분이 계셔서 제 축사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축사(Ⅱ) : <지원상 목사>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부탁을 받아 보고 또 축사와 격려사도 부탁을 많이 받아 보았습시다만 이번 같이 어려운 순서는 생전 처음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서지에 이렇게 보니까 서평이 주욱 나오고 격려사가 나오고 축사가 세 분인데 왜 또 저를 가운데다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먼저 넣었으면 하고 싶은 말 몇 마디 하고 들어가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맨 나중에 넣었으면 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면 되겠는데 가운데다 넣어서 무슨 말씀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릴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김창인 목사님의 「예식과 설교」출판 기념 감사예배에 와서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김창인 목사님을 뵈 때마다 서너가지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김 목사님의 인격에 대해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농담으로라도 누가 듣기 거북한 농담을 하면 얼른 웃으면서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참 존경해 왔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도 성공하셔서 목회자로서도 존경해 오고 또 요즈음 연합적인 일에 있어서나 전체 교회 일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의 한 분으로 나오셔서 늘 수고하시는데 일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참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다고 느끼면서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저술가라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곳에서 부탁을 받으면서 이번에 축사와 같이 아주 철저하게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 「예식과 설교」라는 책을 보니까 모든 예식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한 후에 또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축사부탁을 6개월 전에 하면서 부 목사님을 보내기를 그 동안에 나온 책을 한 보따리 갖다 주어요.

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책을 저술하셨는가 하고 보면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축사 부탁을 6개월전에 하면서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시다. 바로 어저께도 전화를 받아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호텔에 들어오면 서부터 보니까 전부터 충현교회 패를 달고서 안내를 하는데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들어오면서 서명을 하는데 책도 하나 주면서 준비를 다 철저히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것만 보면 알겠습니다.

어떤 분의 말씀은 적어도 글을 쓴다고 하면 일생 동안에 자기 키보다 높게 써야 저술가입니다. 저도 글줄이나 쓴다고 이것 저것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내 생각에는 내가 쓴 원고가 내 키 만큼은 못되었다 생각하면서 이걸 마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김창인 목사님 저서 출판 목록을 보니까 열 네권인데 아마 이

이상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 분은 원고지로 해서 키 만큼만 아니라 책으로 쌓아서 키 만큼 될 때가 거의 다 된 것같은데 저는 이 축사대신 과제 하나를 드리고서 축사를 대신해 드릴까 합니다. 그 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저기 다니면서 성경 공부에 대해 많이 격려하는데 학생을 모집할 때는 성경 공부 마칠 때까지 어디 이사도 가지 말고 멀리 여행도 가지 말고, 젊은 여자는 시작했다가는 아기도 낳지 말고, 연세 많은 분은 세상을 떠나도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 모집을 하곤 했더니 어떤 교회에서 85세된 권사님이 입학 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이 거절하다 못해 제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 왜 그러냐”고 하니 “이 분이 공부 못할 분인데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그러냐”고 “권사님을 좀 보자”고 하여 85세된 분이니 2년동안 못한다고 하면서 가시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재발 입학 만이라도 시켜 달려요. 왜 입학하려고 하느냐고 하니, 입학을 하면 죽어도 안된다고 하니 2년은 더 살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쌓아 놓아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과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김창인 목사님 키만큼 될 때까지 마저 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사가 되었는지 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 김창인 목사님께서 귀한 책을 내시고 오늘 이렇게 성대한 기념식을 드리는데 와서 간단하게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Ⅲ): 〈이영찬 목사〉

앞의 분들의 귀한 말씀을 해 놓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하동문하고 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요. 그러면 준비하신 분들에게 인사도 안 되겠고 아무래도 인사는 하고 내려 가야겠습니다. 제가 김창인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1년 반 밖에 안됩니다. 그전에는 인사도 없었고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저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의 아이가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니까 저도 목사가 되겠다고 제 아들놈이 그래요. 국민학교 때부터 그랬

는데요.

제가 의학을 하다가 해방 후에 신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처음에 의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를 갔다 와서는 어디를 갔다 와요. 주일 오후에도 어디를 갔다 와서는 김창인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 봐라” 하고는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교회는 밤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밤 예배를 꼭 충현 교회에 가서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은혜 받았다 하고는 설교 이야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쪽으로는 목사님께 질투가 생겨요. 제 아버지 설교 듣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설교를 듣고서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질투가 조금 생기는데 그래도 아! 그러느냐? 하고서는 언젠가 김창인 목사님을 꼭 뵈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반 전에 성서공회 이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곧 가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인사를 하며 어떻게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꼭 형님 만나 본 것 같고 꼭 선생님 만나 본 것 같고, 그래서 만나서 제 자식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했더니 “그러세요” 그 다음부터 서로 자주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을 합니다.

한번은 성서공회 사무실이 종로에 있을 때 차고가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사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약하게 걸었습니다. 목사님이 타실려고 그러는데 문을 열어 놓고 잠깐 자기가 나오려고 하니 차가 혼자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목사님이 차 문에 치고 차 밑에 깔려 들어가고 차는 그대로 내려가는데 바퀴에 치일뿐 해 벽에 이마도 다치시고 다리도 다치시고 했습니다. 야단 났다 하고는 “목사님 어디 다치신데 없느냐”고 하니 “아! 괜찮다”고 하시고 “감사합니다”해요. 아니 이 어른봐라 감사하다니, 이 정도면 기사보고 야단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약하게 할 수 있느냐고 하시겠는데 “감사합니다”하는데 한편으로 제가 부끄럽지만 참 훌륭한 목자시

로구나 하는 존경이 거기서 스스로 나오는 것을 느꼈읍니다.

제가 성서공회에 먼저 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 이사장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김창인 목사님이 오셨다가 “다음 총회 때는 제가 바빠서 못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오십시오. 실행위원으로라도 하셔야지 안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 내 말을 듣고 오셨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저번에 이사장으로 모실때 참 고마웠읍니다.

점점 사귀면서 제가 충현교회에 대해서 북한선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을 거느리면서 충현교회를 이끄시고 북한선교회를 하시는 것, 저도 목사를 33년 하면서 설교집도 만들고 기장 총회에서 특별히 예식서도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해보면서도 목회를 해보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27년 추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27년 목회를 해왔으니까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설교와 예식을 읽으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했습니다. 목회에 이런 것이 있구나, 거기에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며,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또한 동역자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흐르기 쉬운데 이 예식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위한, 남을 위한, 목회자를 위한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격려사를 해 달라고 하고 축사를 해 달라고 할 때는 막 혼동도 되었지만 나중에 축사로 귀결될 때 이것은 같은 거다 하면서도 반가운 것은 제가 목사님께 한번 “합동축에는 정년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읍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정년으로 물러섭니다” 해요. “충현교회를 완성하고 물러서셔야지요” 하니까 “아니예요, 저는 마음에 정년을 정했어요”라고 할 때 야, 진짜 후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로구나. 그 존경이 점점 더 깊어져요. 바라건대 남은 여생 계속 후배들을 양성하시면서 큰 대업을 이루시는 귀한 분이 되시기

를 바라면서 축사를 대신합니다.

사회자 :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여기 한 가지 순서를 더 첨가시키겠습니다. 수도노회에서 나오셔서 김창인 목사님께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기념품증정 : 〈수도노회장〉

이주일 지나 수요일이면 수도노회 정기노회를시다. 그런데 김 목사님이 수도노회 회원이시기 때문에 그때 드려도 가하겠지만 출판기념 감사예배 때에 기념패를 드리는 것이 더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해서 가지고 나왔읍니다.

기념패

성역 50주년 및 저작 출판

저자 김 창인 목사

(시편 18편 1절은 우리 김 목사님이 평생에 사랑하고 잘 읽는 성구인 줄 알고 넣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역 50여년 간을 일제하에서 또는 6·25 동란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이 굴하지 아니하시고 충현 제단에서는 물론 국내외 각 지역에서 외쳐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집으로 엮어 출간하여 기념하는 그 뜻을 본 노회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1986년 10월 9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수도노회 노회장

김 관 섭 목사

사회자 : 이제 김창인 목사님이 나오셔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모두 ‘목사님 이 다음에 더 좋은 책 더 많이 써 주십시오’하는 뜻에서 함께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사 : 〈김창인 목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많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훌륭한 한국의 보배이셨던 이기선 목사님 밑에서 입교문답을 하였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하여 주신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한 경적 목사님은 혹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

가 18살에 신의주에 있는 성경 학교에서 한경직 목사님께 배운 학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하여 주신 박윤선 목사님은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에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 저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한경직 목사님 밑에서 성경공부를 했고 훌륭하신 박윤선 목사님의 문하에서 신학을 공부한 것을 생각하면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오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섭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책을 펴낸 것은 지난 49년 6개월의 목회 일선에서 충성하는 동안에 조금씩 기록해 놓았었는데 그것을 충현교회가 책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이성근 목사님이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한번 출판해 보자고 하여 된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에는 여러분이 수고를 하셨는데 이성근 목사님, 김장근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수고를 해 주셨고 여러 장로님들이 협력해 주셔서 책이 한 권, 한 권 나오기 시작하여 「예식과 설교」라는 이 책은 14권째로 나온 것인 줄로 압니다.

부족한 종과 저를 돕는 몇 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의논하기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은혜를 받아 이사야서를 여섯 권으로 묶어서 출판하고, 시편도 다섯 권으로 내볼까 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여러분이 기도로 응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모든 순서를 성경학교의 은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과 신학교의 교장선생님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다면 오늘 축복해 주신 여러분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움이 없는 보고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의 아내와 함께 큰 절을 한 번 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사회자 : 충현교회 당회 서기이신 이승선 장로님께서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 고 : <이승선 장로>



오늘 출판 감사예배가 성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해 주신 한경직 목사님과 박윤선 목사님 그리고 각 순서를 맡아 주신 교계의 여러지도자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 출판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와 축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식과 설교」 출판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전국 교회에서 20여통의 축전과 격려문이 답지되어있고 또한 29 개의 축하 화분을 보내주신 모든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2부 순서가 진행되었을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가지지 파시고 성도의 교재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 다같이 찬송가 415장을 부르겠습니다.

회 중 : 415장 합창

사회자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되시는 최동진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 도 : <최동진 목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감동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모든 책을 저술하신 주님의 사자 위애와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한 가지로 예배드리며 은혜받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민주자 : 송영

〈2부순서〉

〈사회 : 최석주 장로〉

지금부터 김창인목사님의 「예식과 설교」출판을 기념 · 감사하는 2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케익점화 : 따님들이 나오셔서 케익에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기 도 : 본교회 출판국 간사이신 김차생장로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김창인목사님의 저서 예식과 설교집 출판기념회를 하나님 앞과 교계 원로이신 주의 종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간 주의 종이 강단에서 외치시던 말씀이 활자화되어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아오니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직접 설교말씀을 듣는 것처럼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책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주의 종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1부 감사예배를 마치고 2부순서 시간을 가지려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모든 순서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케익자르기 : 김창인목사님과 사모님 은사이신 한경작목사님과 박윤선목사님을 모시고 케익을 자르겠습니다.

가족소개 : 김창인목사님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때에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김창인목사님, 박명식사모님. 큰 따님 김영신집사, 큰 사위 문한규장로님, 그리고 두 손자, 그다음에 세째 따님 성숙씨와 세째 사위 김인철씨, 그리고 막내 손녀입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자녀들은 참석 못하시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큰 따님네 가족

과 세째 따님 가족만 참석하셨습니다.

당회원인사 : 다음은 본교회 당회원 장로 전원이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를 받으시고 박수로 답해주시고.

나오셔서 인사를 하셨으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시기 바랍니다.

특 송 : • 다음 순서는 김창인목사님이 키워주신 교수님 세 분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윤영탁목사(합동신학원교수), 이종운목사(전주대학교총장), 신성종목사(충신대학 신학대학원교수)

• 이제는 한나여전도회연합회 임원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이야기소개 : 김창인목사님이 결정하신 아름다운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당회원은 현재 김창인목사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개나리 아파트 505호를 김창인목사님에게 드리기로 가결하고 드렸더니 고마워하시며 ‘여러분과 교회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것을 다시 교회에 바치겠으니 받아달라’고 장로님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심으로 교회가 다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창인목사님은 당신의 소유로 된 부동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민 천국의 집이 있으니 땅의 집이 나에게 필요가 있는가, 잠시 머물다가 갈 인생이 아닌가” 하시며 개인적인 부동산이나 물질도 오직 교회건축과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바쳐오셨던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특 송 : 다음은 에스더여전도회연합회 임원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폐 회 : 계속해서 여러분 중에는 특순이나 축사의 말씀을 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 마는 이것으로 약하며 다같이 102장 찬송을 합창하심으로 김창인목사님의 「예식과 설교」출판을 기념 · 감사하는 2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



조 선 근
(장로, 월간충현편집위원)

해마다 9월이 오면

9월이 막 지나가려 한다. 충현교회 설립일이 이 달에 들어 있기 때문일까? 이 때가 되면 우리교회와 역사를 더욱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교회설립 33주년을 맞았다.

한국교회 100여년에 비하면 짧은 연륜이긴 하지만 그 33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에 감사, 감격하게 된다. 그리고 나선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다. 충현교회는 더 많이 더 크게 받은 교회답게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교회 역사를 회고하며 깊이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과 역사 앞에 뒤흔치고 자랑스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 같은 것을 해본다. 하나님께서 충현교회에 거시는 기대와 요구가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는 5대 사업 등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

나는 본래 재주가 없는 사람이지만 교회의 문서활동, 문서전도에 다소 관심을 가지고 일한 덕분에 우리교회 역사 편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교회의 각종 기록과 서류를 수집, 검토하며 느낀 것은 우리교회 초창기의 역사적 기록이 많이 없다는 것이었다. 문서 기록에 대한 인식이 너무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통일된 기록이 못되거나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 교회 역사를 정리, 편찬하는 데에 크나큰 애로가 있었다.

한번은 교회내 어느 부서의 부탁으로 해당 부서의 연혁을 정리해 주기로 했는데, 역사적 추이를 하다 보니 상당한 기간 동안의 기록이 전혀 없어서 도울 수 없었다. 업적도 많이 있고 활동이 활발한 부서임에

도 불구하고 역사적 자료 분실로 정리할 수 없어서 몹시 안타까웠다.

이태 전, 한국교회 100년 행사가 있을 이후 역사를 서술하려는 개교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한다. 그런 관심과 의욕이 있는데도 대개의 교회들이 역사 편찬에 기본이 되는 기록(사료)을 체계있게 모아두지 않아 교회사 정리에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다.

자료 보존의 필요성

기록이라 함은 문자로 쓰여진 기록뿐만 아니라 영상언어인 사진자료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이는 역사는 기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기록이나 유물이 없을 때 그것은 역사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남겨둔 기록을 통해서만 지난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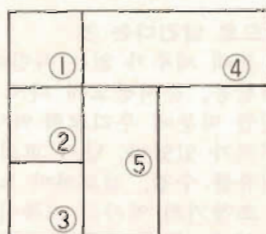
이처럼 기록은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그 기록만큼 중요한 것은 기록(자료)의 보존이다. 여러가지 기록이나 자료가 있었으나 오늘날 그것들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은 부주의했거나 보존하는 데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존되지 않은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더 나은 역사, 미래 창조를 위하여

기록이나 보존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역사 의식의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는 기록하고 정리하지 아니하면 인멸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교회는 더 나은 역사 그리고 미래 창조를 위해 기록과 자료의 귀중성을 인식시키는 작업도 다른 일들과 함께 믿음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줄 안다. *

사진으로 보는

김창인목사 출판



- ① 1부예배를 사회하시는 신성종 목사
- ② 성경봉독하시는 윤영탁 목사
- ③ 악력을 소개하시는 조현영 장로
- ④ 순서를 담당해 주신 교계 지도자들
- ⑤ 기도(한경직 목사)와 설교(박윤선 목사)를 해주신 저자의 은사님들

감사예배 모습





⑥	⑦
⑧	
⑨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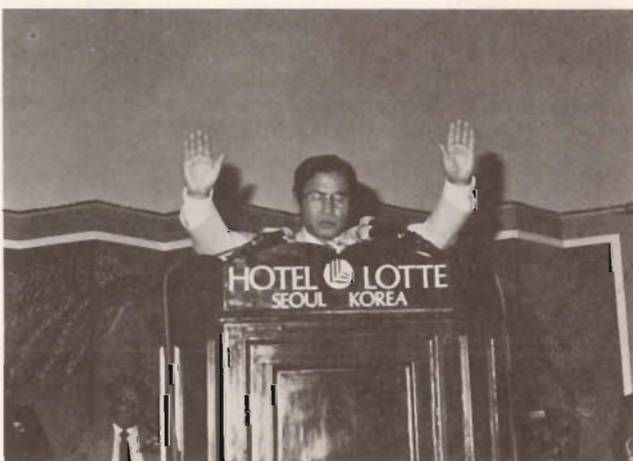
- ⑥ 서평(Ⅰ)을 하시는 김희보 목사
- ⑦ 서평(Ⅱ)을 하시는 정진경 목사
- ⑧ 축하장을 가득 메운 내외빈들
- ⑨ 격려사를 하시는 유호준 목사
- ⑩ 축사(Ⅰ)를 하시는 조항록 목사





⑪	⑫
	⑬
⑭	⑮

- ① 축사(Ⅱ)를 하시는 지원상 목사
 ② 축사(Ⅲ)를 하시는 이영찬 목사
 ③ 저자 김창인 목사 내외분
 ④ 광고하시는 이응선 장로
 ⑤ 축도하시는 최동진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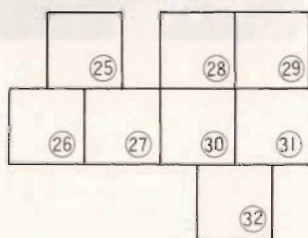






①⑥	①⑧	②①	②②
	①⑨	②③	②④
①⑦	②⑦		

- ①⑥ 답사하시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
- ①⑦ 경건하게 드러진 예배광경
- ①⑧ 특송을 하시는 박성원 교수
- ①⑨ 수도노회로부터 기념패를 전달받는 저자
- ②⑦ 축하장을 더욱 빛낸 피아노 삼중주
- ②① 2부순서에 특송과 인사하시는 당회원
- ②② 저자의 제자들을 한자리에
- ②③ 두 분 은사에게 인사하시는 저자
- ②④ 은사이신 한경직 목사와 기쁨을 나누는 저자



- 25 2부순서 사회하시는 최석주 장로
- 26 2부순서에 기도하시는 김차생 장로
- 27 촛불을 끄시는 김창인 목사 내외분
- 28 내외빈께 인사하시는 저자의 가족들
- 29 순서를 담당하신 목사님들과의 환담
- 30 폐회시 인사하시는 저자와 가족들
- 31 축하객과 인사를 나누시는 저자
- 32 한자리에 모인 저자 김창인 목사의 가족들



金昌仁牧師와 忠峴教會



洪致模 (교수)

1.

지난 10월 9일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 식장에는 약 800명이 넘는 축하객들이 모여 충현교회 담임목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창인 목사의 성역 5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최근에 간행된 그의 <예식과 설교>를 축하하는 출판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 식장에는 많은 축하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한국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한경직목사님의 기도과 은사이신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는 그 식장을 한층 더 빛나게 해주었다. 나중에 김창인 목사님의 답사에서 안 것이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또한 김창인 목사님의 은사인줄은 필자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교회의 각 교파의 지도급 목사님들의 격이없는 격려사와 축하였다. 그들 모두가 진심으로 김창인 목사의 성역 50주년을 축하하였고 또한 그의 예식과 설교집의 간행을 치하하였다. 그 식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던 나는 가슴이 뻘뻘했고 잠시나마 김창인 목사님의 인생행로의 발자취를 나 혼자서 회상해 보기도 하였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목회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출판기념 예배는 김목사님의 목회생활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요 또한 그의 생애에 있어서 더할나위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2.

필자는 충현교회의 교인도 아니고 평소에 김목사님을 가까이 모셔본 일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글을 쓴다는 것은 외람된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창인 목사님에게 실례가 될까봐 매우 염려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가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충현지 편집인의 부탁도 있고 또한 내가 김창인 목사님을 목회자로서 존경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내가 김창인 목사님을 처음 뵈게된 것은 6·25 피난 시절이었다. 일선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부산에 내려간 것은 1951년 늦가을이었다. 그때 나는 학교가 서대신동에 천막을 치고 있었으므로 하숙집을 동대신동에 정하게 되었고 교회는 서부교회(西陪教會)에 나가게 되었다. 그 교회에는 나의 학생신앙운동의 동지였던 한동회 목사(당시 주일학교 부장)가 있었으므로 자연이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창인 목사님은 고려신학교를 졸업하셨지만 고려과에 가담한 것은 필자가 더 빠르다. 필자는 이때 1949년 여름 서울서 부산에 내려가 학생신앙운동·하기수양회에 참석하여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한부선 목사님의 설교와 한상동, 한명동 목사님의 설교도 매우 감동적으로 느꼈다. 그때서부교회의 교인이었던 한동회 목사를 알게되었다. 주일 날 처음으로 서부교회에 출석하니 지금의 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김창인 전도사님을 뵈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김창인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지 말씀하시는 액센트가 이북 사투리를 쓰시기 때문에 이북에서 피난오신 전도사님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김목사님의 설교가 매우 정열적이었던 것과 또한 영적이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애원하는 듯한 호소력도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웠던 것은 설교도중에 기침을 많이 하셔서 이것을 본 나는 불안했

었다. 김목사님이 저렇게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계시면서 힘을 다해 설교를 하시니 저러다가 강단위에서 쓰러지시면 어떡하나—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적으로는 쓰러질듯한 김창인 목사님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 세워 주셨으니 참으로 기적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서부교회에 출석한 지 몇 달 안되서 그 이듬해(1952년 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김창인 전도사님은 서부교회를 사임하고 동일교회를 설립하셨다. 그때 단 몇 달 동안 나는 김창인 목사님을 모셨지만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도 한가닥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다.

3.

수복후 김창인 목사님은 충무로 5가에 충현교회를 설립하시고 목사로서 본격적인 목회생활을 하시게 되었다.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취월장하여 오늘의 충현교회를 이룩한 것이다. 그의 목회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다른 분들은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지만 나도 나 나름대로 보는 것이 있다.

김창인 목사님은 언제나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기도생활이라든가 목회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강조하신다. 그의 표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시다. 그는 남달리 학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앉으시지만 만 명이 넘는 각계 각층의 교인을 거느리고 행군하는 저력은 순전히 영력(靈力) 때문이다. 본래 목회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수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목회자는 스스로의 신앙인격과 진실이 바탕이 되는 것이고 교인들이 목회자의 인격을 알고 믿을 때 따르기 마련이다. 김창인 목사님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 그는 젊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20세 전후하여 평북지방에서 부흥사로 활약했으니 역시 하나님이 내신 목회자요 부흥사였다. 만약 김목사님이 정식으로 신학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혹시 신비주의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어른에게는 그와같은 소질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박윤선 목사님에게 개혁신학을 배웠다는 것이 김창인 목사님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김창인 목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김목사님은 부흥사로서도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돈을 탐하거나 명예를 추구하는 일은 없었고 더군다나 이성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어른이시다. 그런 문제로 소문난 일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청빈한 목회자이시다.

끝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내가 김창인 목사님의 따님 혜신씨를 직접 가르쳤다는 것과 나의 믿음의 형님이신 홍종만 목사님이 충현교회의 부목사로 봉사했다는 것 그리고 최훈 목사님도 동역자로서 같은 교회에서 시무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충현교회에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나는 충현교회와 멀리있으면서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늘 생각한다.

오늘의 충현교회가 있기까지 모든 교우들이 남이 모르는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봉사했으므로 하나님이 충현교회라는 공동체를 축복하셨다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큰 식구들을 거느리고 일사불란하게 천국을 향해서 행진하는 데 총사령관으로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시느라고 수고와 고생을 하신 장본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재언할 필요없이 김창인 목사님이시다.

그는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위세당당한 사람도 아니다. 어쩌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김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따뜻한 미소와 인자한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면서도 김목사님은 엄한 어른이시다. 과연 맹호출림을 방불케하신다.

한국교회 100년사를 장식하는 이때 충현교회와 김창인 목사님의 행적은 한국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평소에 본대로 느낀대로 적어보았다. *

妄言多謝

1986. 10. 9

특집 II

성전 건축을 위한 해외여행 보고

보다 나은 성전건축을 위하여



이 정 우

(집사·건축본부장)

—영국—

저녁 7시 30분 파리 드골공항을 이륙한 영국 항공 비행기로 1시간만에 영국의 히드로 국제공항(Heathrow Airport)에 도착하니 전날 파리에서 연락이 된 본교회에서 파송되어 영국에서 공부중인 성주진 전도사의 영접을 받으니 반갑다.

성전도사님은 부인과 아이들과 같이 영국 중부의 기차로 약 5시간 걸리는 먼곳으로부터 마중을 온 것이다. 믿음의 식구의 사랑의 표현같아 참 감사하다.

파리—런던간의 비행시간 1시간 안에 번개불에 콩튀듯한 식사였기에, 부족감을 느꼈으므로 공항에서 간단한 저녁식사를 들고난 후 Earl's Court 지하철역 근처의 2층 여관급인 Albang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은 주일이므로 런던 한인교회에서 예배 후에 솔즈베리성당을 찾기로 하였다.

여관 부근에서 말로만 듣고 사진에서나 보던 반쪽은 면도로 깎고 머리카락은 모두 세워 천연색으로 염색한 펑키 스타일의 머리를 보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그 참한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여관 목욕탕에 들어가 보니 면도용 콘센트가 있는데 110볼트라는 글이 반갑다. 유럽 국가는 전압이 모두 240볼트이기 때문에 가지고 간 110볼트용 아답타가 파리여관에서 불타버린 후 VTR용 배터리 충전이 불가능하여 불란서 아미앵과 보베의 그 아름다운 성당을 찍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와 했으며 별 수 없이 VTR은 집밖에 되지 않는줄 알았는데, 탄성이 절로 나온다. 모든 나라 전압이 240볼트인데 110볼트짜리 콘센트가 있다니, 바로 배터리 충전을 시작하니 그 저 여호와 이레이다.

4일째 되는 8월 3일 주일 10시 30분에 시작되는 예배시간에 맞추기 위해, 우리 일행은 얼스코트역(Earl's Court)에서 지하철을 타고, Wembledon park를 지나 테니스 시합으로 유명한 Wembledon역에서 내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다시 Taxi로 15분쯤 거리의 Surry구 Kingston 시에 위치한 런던한인교회를 찾았다. 햄턴 코

트(Hampton Court) 근처의 조용한 위성도시로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기성 영국 교회를 빌어서 세운 교회이기는 하지만 “런던한인교회”라는 붉은 글씨의 간판이 우리를 맞는다.

한 시간의 예배를 마치고 성전도사의 선배인 한일은행 런던 지점의 정현진 집사님 댁에서 점심으로 짜장면을 대접받은 후 솔즈베리(Salisbury)를 향하여 떠났다. 빗방울은 더욱 거세어 진다.

솔즈베리는 런던 서남쪽 약 120km 떨어진 곳으로 영국 문화사상 유서가 깊은 곳이며 일대가 느릅나무로 우거져 절경이다.

초보운전인 정현진 집사의 희생적이고, 의욕적인 도움으로 빗줄기 거센 영국 고속도로를 좌측통행하여(영국은 자동차가 좌측통행) 약 1시간 후에 솔즈베리 성당에 도착하니 빗방울이 약해진다.

이 성당은 1220년에 시작하여 1258년에 1차 완공하였고 1284년에 가서야 64년만에 지금의 모양으로 완성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건축하면서 끝날 즈음에는 새로운 양식의 이념이 무르익을 무렵임에도 양식의 변화없이 고딕 양식을 존중하여 완성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외관을 VTR촬영을 시작하려니 햇빛이 난다. “무슨 일이든지 믿고 행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본다”던 최석주 장로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일행은 모두 감사한 마음뿐이다.

성당 건축 수법은 프랑스의 아미앵(Eimien)의 성당 양식에서 기인된 완전 초기 영국식으로 이루어졌고 서쪽 정면은 쌍탑이 퇴화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채로운 것은 주회장의 정탑부이다. 높이 123m의 첨탑을 치솟게 한점인 바 이 첨탑의 수법인즉 영국 고딕 양식 중에서도 빼어난 작품에 속한다. 우리는 이 첨탑 꼭대기에 세워진 보수용 사다리를 보고 아직까지 궁금했던 것 한 가지를 해결하였다. 참으로 실용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표현이랄까, 우리 교회에 참조할 만한 상세를 찾으니 기쁨이 온다.

영국의 성당은 주교, 국왕들의 무덤이기도 해서 회랑 벽이나 복도 등에 대리석 판을 놓고



▲솔즈베리 성당 첨탑



▲솔즈베리 성당 첨탑
(보수용사다리가 이채롭다)



▲웨스트민스터 수도원 전경

그 위에 대리석으로 상을 조각하여 넣어놓았다.

주 예배당 좌우측으로 파이프 올개를 나누어 놓으니 조화가 잘된다. 실내 분위기는 스테인드 그라스의 아름다움에도 킁킁하게 느껴진다.

종탑은 돌을 다듬어 덮었으며, 프랑스 고딕건축처럼 동물들의 상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다. 둘러보고 떠날려니 비가 올 것 같다.

다음 날인 8월 4일에는 런던 시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수도원(Westminster Abby)과 영국 국회의사당(The House of Parliament)을 보기로 한다.

두 건물이 큰길 사이를 두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은 서기 1055년부터 1695년까지 640년간이나 계속 개조되면서 영국 고딕양식사를 집약한 것같은 외관인데 긴기간 동안 개축하면서도 한꺼번에 지은것같이 보이는 훌륭한 집이다.

외관을 일별하면 단아한 단순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특히 정면은 많은 것을 생략한 느낌도 든다. 내부의 한없이 뻗어올라 가는듯이 보이는 가늘고 긴 골진 기둥의 리브는 천정에 이르러 나뭇잎 줄기처럼 얹혀 뒹뒹하고 어슴프레스며드는 스테인드그라스의 부드러운 빛은 환상적인 천주교회 본래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지하에는 감옥에 있었던 곳도 있고 복도에는 온통 무덤같이 관을 덮은 대리석과 묘비명이 새겨 있고 벽의 곳곳에도 무덤이다.

건축용 석재의 절은 현지산으로서 화석암을 사용하였는데 내구성이 없음이 안타까웠으나 이런 점에 비교해서 우리가 사용할 화강암은 훨씬 내구성이 좋으니 다행한 일이다.

국회의사당의 건물은 외관으로 보며 관찰한 후에 런던 타워(London Tower)와 데임즈 강을 볼 수 있었는데 마침 엘리자베트 여왕의 모후(Ki



▲ 쾰른 성당 전경

Mother)의 생일이라 축포를 쏘며 축하행사가 있었다. 맑은 날씨라 많은 관람객들이 쏟아진다.

런던타워의 중요부분은 화강석을 사용하였는데 그 다듬은 솜씨가 꽤 좋아 보였다.

일행은 하이드파크를 지나 버킹검 궁전을 밖으로 돌아서 너도밤나무가 울창한 뒷길을 돌아 나와 성바울성당을 견학할 생각도 하였으나 새 성전 건축만을 위해 고딕건축만을 섭렵하여 배우고자한 처음의 계획을 고수하고 시간을 아껴 다음 목적지인 서독 쾰른(Köln)으로 떠나기로

하고 짐을 챙겨 곧바로 히드로 국제공항으로 직행하였다.

—서독—

오후 7시 5분에 영국 히드로 공항을 떠나 다음 목적지인 독일의 쾰른공항에 도착하니 9시 15분이다.

비스바덴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김성주 목사님이 마중을 나와 주시어 쾰른 입구의 코스모스(Kosmos)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튿날 아침, 창밖의 나무숲 너머로 성당 종탑이 보인다.

김성주 목사님은 오후 1시의 결혼식 주례차 일찍 떠나시고, 호텔에서 택시로 10분거리의 쾰른성당(Kölner Dom)으로 갔다.

유럽 북부 고딕 양식 중에서 최대 규모의 성당답게 웅장하고 스케일이 크다. 또한 그 섬세한 조각솜씨가 돋보였고 서두름 없이 진행되어 없이 진행되었던 것을 피부로 느낀다.

이 성당은 1248년에 착공하여 140년 동안의 시공기간을 거쳐 1388년에 준공되었다는데 길이 156m, 폭 91.5m, 천정높이 50m, 정면 쌍종탑의 높이가 167m의 경이적인 거체이다.

평면, 규모 및 고창 형식 등에서 프랑스의 사르트르성당(Chartre Cathedral)과 아미앵성당(Amiens Cathedral)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시 설계 자료를 수집키 위해 지방 여행이 잦았던 건축가들이 이 두 성당을 견학하고 그 평면 계획을 절충 모방했다는 것이다.

파이프 올겐의 규모는 성당 규모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 성당도 역시 내부 곳곳과 복도 등이 신부들의 무덤으로 되어 있다. 지하 예배실도 있었으며 2차대전 중에 모두 파괴된 스테인드그라스를 모두 새로 끼웠다고 하며 지금 다시 약간 현대화된 문양으로 수리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교회 3층에 스테인드 그라스를 한다면 천주교식이 아닌 좀더 현대화된 것을 채택하여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것이 확신했다.

아취 중간살의 측면은 석창살로 균형을 잡아 안전을 도모한 방법도 우리 교회 건축시 둘 가 공 설치 공사에서 해결해야 할 점으로 배운 것

중의 하나이다. 외부에서 본 종탑은 돌조각 장식적으로 조각의 극치를 이루었으며 바람 많은 고장에서 구조적인 면을 해결한 방법을 보았다.

즉 종탑은 돌을 조각하여 그물처럼 짜아 쌓았으므로 종탑 내부는 바로 박인 것이다.

또 지상에서 종탑 2층까지는 직통 돌을 원형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수는 무려 491계단이며 그 높이는 145m 정도이다. 라인강과 시내 전역이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이까지 설치된 원형 계단은 1단씩 1개의 돌로 깎아 쌓여졌는데 기둥 부분과 계단 폭이 점점 좁아져 최상부는 그 폭이 60cm밖에 되지 않았다.

돌다듬은 방법은 거칠지만 그 섬세함은 대단하다. 조각을 빼고는 톱등 기계를 사용한 것 같았다. 사용된 돌의 종류는 단단하지 않은 조개껍질이 박혀있는 화석종류였다. 지붕은 내구성을 위하여 납을 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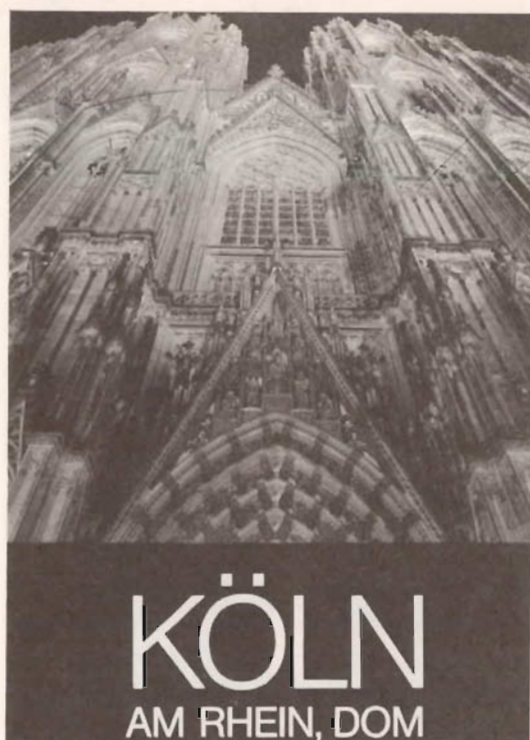
종탑에는 10개의 종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직경이 약 3m 정도되고 1층에 있는 대형 기계식 시계에 의하여 조정되며 시간이 되면 순서에 의하여 10개의 종이 멜로디를 이루어 울리게 되어 있었다.

약 4시간에 걸쳐 살살이 견학하고 필요한 부분은 VTR에 녹화한 후에 짐을 꾸려 성당 근처에 있는 쾰른역에서 12시 51분발 기차로 비스바덴(Wiesbaden)으로 떠난다.

쾰른에서 비스바덴까지 라인강을 끼고 가게 되는데 강 양쪽에는 기차와 고속도로가 각각 복선으로 부설되어 있는데 교통이 아주 편하며 강에는 물이 풍부하여 화물선 관광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나는 배의 선복량이 꽤 큰 것으로 봐서 독일 산업에 미치는 라인강의 역할이 대단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또 강 양편 언덕에는 포도원으로 개발되어 있고 주변의 마을, 교회당, 고성 등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다.

2시 40분에 비스바덴역에 도착하여 육호기 목사님에게 전화드리니 반갑게 맞아 주신다. 육목사님 댁에 가니 우선 VTR 배터리 걱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에서도 보여진다. 댁에 강압용 아담타가 준비되어 있었다.

비스바덴은 독일의 우수한 휴양지로서 온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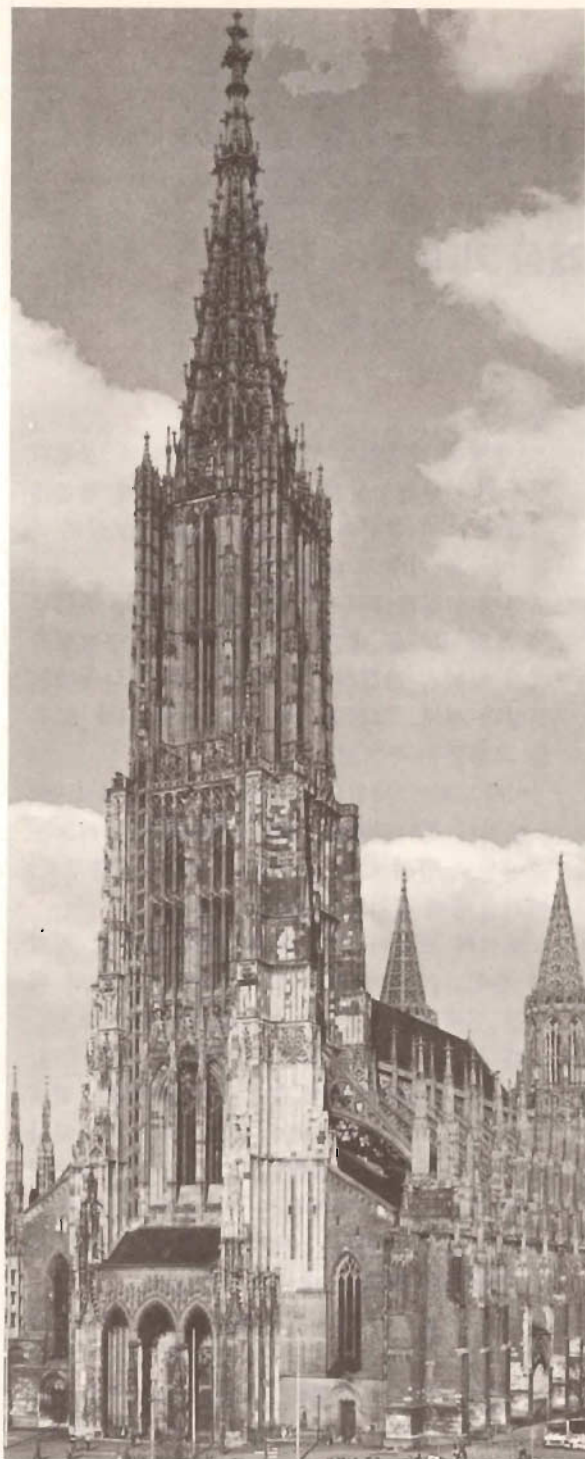


▲ 쾰른 성당 야경

광천수(80℃로 끓인 초정약수에 소금을 탄 것 같은)가 유명하며 2차대전 중에도 폭격을 피할 수 있어서 지금도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도시다. 광천수 2컵씩을 약으로 마시고 육목사님의 안내로 로렐라이 언덕을 구경하는 행운을 얻었다. 북부 유럽은 여름에는 낮이 길어서 밤 10시나 돼야 일몰이 되므로, 시간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8월 6일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종탑을 가진 울름 성당(Ulm Dom)인데 육목사님이 자동차로 울름성당까지 안내하고 가능하면 스위스 쾰리히(Zürich)까지 안내하기로 하고 사모님을 동행하니 일행이 5명이 되어 울름성당으로 향했다.

스투트 가르트(Stuttgart)를 지나 울름까지 가는 길에는 구름과 평야만 있을 뿐이고 산이 없다. 길옆의 잘 정돈된 수림과 농토가 보인다. 천연자원 중 나무 자원의 관리가 철저함을 볼 수 있으며 땅은 비옥했다. 다행스럽게도 더운 날



▲울름 성당 전경
(종탑의 조각이 아름답다)

씨지만 맑은 날씨를 계속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동차 여행 중의 찬송가는 더욱 은혜롭다.

오후 1시쯤에 울름성당에 도착하여 바로 VTR 녹화하고 내부와 외부를 살살이 관찰한다. 돌의 종류는 구멍이 많이 난 트라바치노 대리석을 사용하였으며 파이프 올건은 후편에 배치했다. 전면은 계속 수리 중이었는데 성당 옆에 쌓아 놓은 수리용 석재가 표면이 부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굉장히 오랫동안 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성당은 1377년부터 1492년까지 115년 동안 건축하였는데 쾰른 성당처럼 쌍종탑 형식이었으나 공기, 공사비에 어려움이 생겨 정면 중앙에 1개의 종탑 형식으로 바꾼 예이다. 쾰른성당의 설계는 프랑스의 기존 평면을 답습했고 또 유달리 높은 정면 쌍종탑을 계획하였으나 이 울름의 성당 설계에서는 탁월한 기술을 자유적이면서도 개성적인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정면 중앙탑의 높이는 쾰른 것보다 9m가 높은 176m이고 그 구성 비례도 훨씬 아름다운 개성을 지녔으며 그 형식은 쾰른성당의 탑처럼 조각장식을 쌓아 내부에서 밖이 통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정밀한 기계식 시계가 유명하다. 역시 스테인드그라스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현대 감각을 가미한 문양을 주제로 한 것으로 바꾸고 있어서 분위기가 새로운 좀더 밝은 것인데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적용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느꼈다. 내부 바닥은 돌로 문양을 만들었으며 광장 바닥에는 세계 각국까지의 방향과 거리가 새겨진 동판을 깔아 놓았다.

마을은 조용하고 아담한 것이 정갈한 느낌이 든다.

갈길에 바쁘니 주리히로 향해 떠난다. (계속)

교회설립 33주년을 지내며

~새롭게 펼쳐나갈 「충현」의 미래상 기대



손 경 수

(제직회서기·청년부부감)

33년동안 충현교회를 지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결코 짧지않은 3개성상을 지내온 충현교회는 당회장(설립자이기도 함) 김창인목사의 헌신적인 목회사역과 온 성도들의 기도 후원으로 한국교회사 백년 기간중 빼놓을 수 없는 주님의 「몸 된교회」로 성장하였다.

양적인 팽창은 말할 나위 없거니와 질적인 수준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자질로 양육되어 왔다.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충현의 성도들은 전도, 교육, 봉사, 구제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헌신적이며,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사명을 완벽에 가깝게 실천해 오고 있음에 크리스찬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도 한다.

이와같이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온 충현교회는 이제 33주년을 지내면서 더욱 새롭게 변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성장되어야 할 것이다.

× × ×

돌이켜 보면 충현의 설립은 미비한 가운데서 출범되었다.

1953년 9월 6일 오후2시30분 서울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한명덕집사택 2층에서 18명이 회집되어 첫예배를 드린것이교회설립의 효시였다.

당시 상황은 6.25사변이후의 전쟁후유증과, 극심한 생활난, 고아와 과부가 어우러져 있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메달라있는 영혼들을 위해 교회설립의 긴급성을 묵시적으로 계시한 것

같다.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권적 명령은 피난성도들의 서울 수복과 함께 말씀에 기갈을 느낀 주님의 자녀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전쟁의 참화속에서도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고, 다시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메지 않겠다는 고백적 다짐과, 나태해진 신앙의 재기, 그리고 생의 원동력을 위해 모두들 교회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이충교회가 세월의 흐름따라 교인증가로 협소해지니 천막교회로, 천막교회 역시 밀려오는 교인들로 인해 다시 교회당을 신축하는(충무로) 어려움 등이 겹치기도 했다.

죄악의 도성이었고, 환락가였던 충무로 지역에 충현교회 예배당을 건축케 하심은 오늘의 역삼동 새에배당의 전초기지였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가르치며, 일하며,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의식을 위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1)란 영원한 교회 표어를 앞세워 천국일군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북한선교, 그리고 새성전건축의 지대한 목표를 달성키 위해 33년간의 역사와 명맥을 이어왔다.

하나님 영광중심의 경건생활을 목회이념으로 하고 있는 김창인목사는 「말씀배워 바로 살자」는 신앙지침을 오늘까지 계속 전지해 오고 있다.

진리를 벗어난 어떤 유혹과, 타협엔 절대로 응하지 않는 옹고집 성격인 김창인목사는 그의 모든 생활신조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중심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연락과 재미엔 전혀 관

심도 갖지 않을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려는 일부 목회동역자와 젊은이들에겐 호된 충고와 견책을 서슴치 않는 믿음의 성직자로서 목회의 성공자였다.

이러한 신앙지도를 받은 총현의 권속들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역할에 앞장서는 용기와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총현의 교세는 주일학교 학생포함 약 1만2천명의 교우가 매주일 출석하고 있으며, 국내전도와 해외선교활동에 주력함과 동시에 제3차 새성전건축공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육이 착착 잘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북한지역에도 전도 특공대들이 들어가 복음의 씨를 뿌릴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이젠 33주년을 보내면서 몇 가지 미래지향적인 총현의 발전상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첫째, 총력전도에 앞장서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맘모스교회당을 건축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2, 3년내엔 예배당건축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회 예배시에 약1만명(비디오실 포함)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 공간확보가 마련되면 총력전도로 자리를 채울 의무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전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전도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친운동을 전개하여 전도대상자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지역의 우체집배원, 동직원, 지역사회 인사들과 영적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일로 부터 시작하여 불신가족 전도, 잃은 양 찾기 운동, 복음의 꽃씨 뿌리기 운동이다.

이 운동은 목사님의 설교카세트및 설교집, 강해서, 복음전도 문고시리즈를 선물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이다.

그뿐 아니라, 씨알(구역장, 교사)이 열매(구역원, 학생)들을 알곡으로 맺히기, 거주지의 통반장을 자청하여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 매월 반상회에 참석하여 교회주보및 월간총현

을 배포하며 예수향기운동을, 복덕방, 미용실, 이발소 등지에 전도자료를 비치하여 교회를 안내하는 복음의 초소와 전도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믿음과 기도로 잉태한 전도대상자를 한 성도가 3명씩만 인도한다면 3배가운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 현재의 5부예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교세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번째로, 교구 구역원의 교사정예화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10교구에 20명의 교역자가 목회심방, 구역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역자는 지도적 입장에서 신앙지도및 교육훈련에만 전념하고, 정예구역교사가 구역관리를 하면서 심방, 구역예배, 성경공부, 교우경조사에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구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생명의 포자(胞子)운동을 전개시켜 각 구역이 구역을 번식시키는 일을 맡아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종합기획실 설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교회내의 각위원회사업및 행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획실이 인적구성, 재정진단, 업무경영지도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미래의 총현교회 발전을 위해 고차원적인 기획업무가 추진되어야만 대교회 운영에 차질이 없을 줄 안다.

물론 당회장의 목회방침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당회의 심의를 거쳐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네번째로, 청소년교육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모두 관심의 대상이지만, 그중에도 대학부, 청년부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겠다.

총현의 기동역할을 감당할 청년층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신앙지도자를 배출하고, 이 가운데서 주교교사, 성가대원, 각 기관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필요한 제반여건들을 조성해 주어야 하겠다.

내일의 총현을 맡을 이들에게 온교회 성도의 뜨거운 기도후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

■ 평신도를 위한 신앙강좌

사도신경총론V



임 종 만
(목사·북서울교회 시무)

2.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가장 귀한 신앙고백이다.

이 선언은 너무나 장엄한 문장으로서 제한된 인간의 지혜와 과학을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는 길 외에는 없다.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1. 창조신앙을 가져야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이 연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계산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지구의 연령이 33억 5천만 년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태양계의 연령은 38억만 년으로 계산하고 우주는 백억만 년 전에 창조되었으리라고 하나 어디까지나 추측뿐이지 정확하지 않다.

창조란 무에서 만들어 낸 것을 말한다.

그리고 천지창조란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위시한 하늘 위에 있는 것, 하늘 아래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밑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다(골 1:16).

아무 것도 없는 중에서 천지만물을 지어 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성을 보이는 유일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렘32:17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라고 하셨다.

우리들이 말로는 쉽게 천지만물의 창조를 말하지만 생각해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거대하고 둥근 지구, 이것을 우주 공간에 띄어 놓았을 뿐 아니라 초속 180마일, 1마일은 1.6km이니 288km이며 한국리수는 약700리가 되는 셈이다. 이런 빠른 속도로 빙빙 돌아가도 사람이나 기타의 생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 지구보다 130만 배나 더 큰 태양과 그것보다 더 큰 수다한 별들을 공간에 띄어 운행하시는 것이다. 이 엄청난 천체들을 끈으로 매어 단 것도 아니고 밑에서 받쳐 놓은 것도 아니고 다만 능력으로 공간에 띄어 놓은 것이다. 욥 26:7에 “그는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고 하셨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우주의 천체들을 빙빙 돌려 일년사시절 춘하추동을 정확하게 하사 오곡백과를 맺어 인류와 만물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는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불드신 까닭이다.

2.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어야겠다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란 말씀이 열 번 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1:3인데 곧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라고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의지를 실현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천지만물은 자연히 생겼다”고 한다. 이는 원인없는 결과를 인정하는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은 것이다. 기독교는 결코 우연이란 말을 용납하지 않는다. 가령 내가 가진 만년필을 들고 “이 물건은 저절로 생겼습니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반드시 보이지는 않지만 지능있는 사람이 만든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히 3:4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고 하셨다.

우리가 집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생겨났을까?”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 집을 누가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창조의 진리 지식은 자연인 곧 불신자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만이 알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히 11:3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셨다. 곧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을 아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창조의 근본이라(계 3:14)고 말씀하셨다.

3.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믿어야겠다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일곱 번 있다. 특히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다.

비록 사람들이 타락은 했지만 추한 것을 싫어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이는 인간은 본래 선하게 지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얼굴, 몸을 아름답게 가지려 하고 집도 화원도 모든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만민으로 깨끗이 하자.

그리고 종종 복잡한 도시의 공해를 벗어나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넓고 높은 하늘을 쳐다 보며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보고 하나님의 숨씨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나 이 일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인 것이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티도프는 우주여행에서 돌아와 보고하기를 “이 지구가 왜 저런 공간에 떠 있는 것인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신자인 미국의 비행사 엘드린은 창세기를 회상하면서 “망원경으로 보는 지구의 모습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 말할 수 없이 아름답기만 하더라!”고 주님을 찬양했다.

4. 각기 종류대로 지어진 것을 믿어야 한다

창세기 1장에 “각기 종류대로”란 말들이 열 번 나온다. 이 말은 기독교는 존재의 일정성을 강력히 주장한다는 뜻이다. 천사, 사람, 짐승, 나무 등 분명히 다르게 지으셨다. 그러므로 천사가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천사나 귀신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없고 짐승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아원을 위시한 많은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진화론을 주장해도 창세기 1장에 있는 한, 그 학설은 영원히 성립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있다는 불교의 범신론적 윤회설도 반드시 언젠가는 그 허구성이 드러나고 말 것이며 인도불교의 차차제석신 곧 최고가 아닌 다음 다음가는 귀신이 한국에 와서 곰이 여자로 둔갑한 자와 결합하여 단군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한국인의 뿌리란 말은 엉터리치고는 너무나 지나친 말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으며 천사 귀신도 될 수 없고 짐승도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눈을 들어 받을 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태복음 9장 37-38절)

박 석 순
(고등부 교사)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토요일 저녁 청량리 역 출구를 벗어나 광장으로 나오면 어둠이 물들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이 아니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현실이 또 있다. 몇 주 전에 소년원을 퇴원하여 어떤 독지가의 기업체로 취직되어 갔다던 퇴원생이 긴 머리에 히피처럼 차려입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우리 앞에 나타날 때면 반가움보다는 먼저 캄캄한 현기증같은 것이 순간적으로 스쳐간다.

“아이고 이 문둥아, 일은 하지않고 여기서 뭐 할라꼬 빈둥거리고 있노?”

“할 일이 어딴어요?”

“와 일이 없노? 무슨 일이든지 하루라도 젊을 때 참고 배워야제”

“그런 것 배워서 언제 돈 벌어요?”

혼자서만 야단 맞기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자기의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인지 묻지도 않은 퇴원생들의 소식을 고한다. 누구는 지금 어느 구치소에 있고 아무개는 어느 교도소에 있단다. 모두 칭찬듣던 모범생들이었다. “그럴 수가...!” 놀라서 아연실색 하노라면 그 보란듯이 그는 슬금슬금 사라져 간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진다. “그만한 힘과 정성으로 착하고 불쌍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을텐데 왜 하필이면 사회를 파괴하고 괴롭히는 그런 아이들에게 투자하느냐?” 대낮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년들에게 핸드백을 빼앗기고 그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예리한 칼날에

찢겨 헤벌어진 핸드백을 메고 들어오는 딸에게 그 어머니가 터뜨린 분통스런 말이 컷가를 때린다. 서로 서로 동역자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능력의 한계와 허탈감들은 이와 같은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심하게 요동을 하며 때로는 어떤 일군들을 아주 주저앉혀 버리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 위에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배신감같은 것이 온 몸의 맥을 다 끊어버리는 것 같다.

맨처음 그들을 만난 것은 1983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였다. 소년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학교라는 것 또한 처음 듣는 말이었다. 성경학교가 열리기까지는 박 양덕 전도사님 혼자서 일년동안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내심을 따라, 오라는 이도 없고 반기는 이도 없는 싸늘한 철대문을 눈물로 여는 사역이 있었다. 그때 당시의 박 전도사님은 간과 심장병 때문에 거치른 숨을 몰아쉬며 말도 크게 못하고 황달기있는 검은 얼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음성 외에는 세상을 잊은 듯한 무표정 그것이었다. 7월 더위가 기승을 부려갈 즈음에 우연히 교회 마당 한 구석에서 전도사님을 만나 소년원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초대를 받았다. 서로가 교제를 나눈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는 사람에게서 함께 동역할 일군으로 초대된 것이다. “8월 초순경에 바쁘지 않으시면 소

년원 여름 성경학교 좀 도와주시겠어요?”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별 계획이 없는데… 다른 급한 일 없으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내일 새벽 6시까지 청량리 역에 나오세요” 라는 간단한 전갈을 받고 나갔더니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도사님 한 분뿐 모두가 서로 낮이 선 사람들 열 서너 명이 모였다.

워낙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학교를 위한 경비 예산도 세울 것이 없었다. 있는 돈으로 교사들 식량을 조금 사고 돌아갈 교통비가 남았는지 안남았었는지 그럴 정도였다. 교사들은 모두 아침 금식을 했다. 그런데도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상품도 간식비도 없이 그냥 밀고 나갔다. 그런데 첫 날 오후부터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났는데 성경학교가 끝날 때까지 전도사님은 물론 교사들은 감격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무 사정도 모르는 직원들과 원생들은 그저 후한 대접에 놀라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성경학교를 할 필요성이 확실해지면서부터 이곳 저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띄워놓았던 말들이 모두 그 결실을 맺어서 적시에 공급되었던 것이다. 이름도 잘 모르는 교회로부터 서울에서 춘천까지 팔시루떡이 수송되는가 하면 300명이 넘는 식구들이 매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각종 간식들이 도착하곤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시상품으로 쓸만한 노트를 수백 권씩 가지고 왔다. 이러한 인적 물적 공급은 처음 성경학교를 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계절학교 만으로는 양육이 부족해서 토요일마다 성경공부반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해 주셨다. 250명이 쓸 교재를 구입할 돈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느 교회 여집사님을 통해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 절기 때마다 원생들을 위로하기 위한 물질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출처로부터 공급되어졌는데,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교사나 원생이나 직원까지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곤 한다.

몇 차례의 성경학교가 실시되고 매일 성경(성서 유니온 간)을 통한 말씀의 섭취가 계속되면서 조금씩이지만 소년원의 분위기와 풍토는 변

화를 보여왔다. 성경학교 때에는 “오랫 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라고 찬송을 목이 터져라 부르며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기도 했다. “선생님, 만일 제가 사회에서 교회가 뭐하는데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요즈음은 참 이상해요.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고 전에 처럼 신경질도 안나요. 괜히 마음이 즐거워요.” “선생님, 저 퇴원하면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세례도 받고요. 그래서 저도 나처럼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가끔씩 날아드는 퇴원생들의 편지는 축 쳐진 교사들의 마음을 공중 놀이 솟구치는 종달이처럼 윤택하게 한다. “선생님, 저는 지금 제 주도에서 중장비 기술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옛 친구들이 찾아 올까봐 누님 덕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누님을 전도해서 함께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누님은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비록 많은 원생들이 실망시키더라도 저같은 아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지금 원주에서 취직했는데 큰 트럭을 몰고 있답니다. 한 달에 두 번 밖에 쉬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한 달에 두 번 밖에 못 나간답니다. 서울 가는 길이 있으면 꼭 전화라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산간벽지 공사장으로부터 흙 묻은 편지도 날아든다. 정직한 돈을 벌고 싶어서, 옛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퇴원한 다음 날로 몇 가지 옷을 챙겨 충청도 어느 저수지 공사장으로 떠났다는 소식도 온다. 처음 성경학교를 열 때에 “이들에게 사람의 표정을 좀 갖게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부탁하던 원장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로 마음 한 구석에 약간의 만족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퇴원생들이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곳에서 또 만나게 될 때마다 교사된 자로서 자책과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지 않을까라고 쉽게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 이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난다. 일꾼을 구하지 아니한 제

으름과 능력의 한계에 쉬 체념해 버리는 소극적인 태도가 그것이다. 크고 작은 수 많은 교회가 편만해 있어도 조직된 기관들이 비둔해서 걸을 수 없는 좁은 길을 따라서, 바라볼 영광이 없다고 교만해서 들어갈 수 없는 낮은 그 곳에, 소산이 적다고 포기한 치너지에 회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썩고 있다. 곡식이 버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말 것인가? 우리는 책망받을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한가?

“너희가 낙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요 4:35-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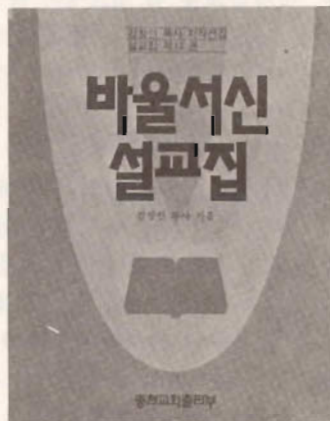
주	천	도	서

‘복음서 설교집’

‘바울서신 설교집’



(복음서 설교집)



(바울서신 설교집)

복음서 설교집(김창인 목사 저작전집 설교집 제5권)

바울서신 설교집(김창인 목사 저작전집 설교집 제13권)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집 2권이 출간되었다. 목사님께서 복음서들과 바울서신들 중에서 본문을 정하고 외치셨던 설교들을 한데 모아서 출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야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전파한 쉽고 분명한 말씀은 읽는 누구에게든지 큰 감동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

헤리 블레마이어 지음

20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경계해야 할 정신 중의 하나는 세속주의이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속적 정신에 의하여 형성된 가치관과 기준을 강요받는다. 기계문명, 매스미디어는 우리에게 물질주의, 황금만능의 정신을 심어주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일반교육은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길러준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민족주의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부채질 한다. 선교 2세기를 맞는 한국교회는 외적인 성장을 자랑하지만 내적인 성숙은 미흡하고 기독교 정신을 수용할만한 문화나 전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때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독교 정신은 어떤 것인가? 세속주의가 범람하는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 헤리 블레마이

어는 세속화의 물결속에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

본서는 사회, 정치, 문화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쳐왔던 기독교 정신이 고갈되고 세속주의가 득세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조사를 시도한 후에 뒷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기독교적 정신이 어떤 것인가, 혹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기독교 정신이 쇠퇴해가는 서구의 상황속에서 쓰여진 책이지만 기독교 정신을 확립하고 실천해야할 절박한 상황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책이다. 이 책은 읽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가져야 할 가치관 사고를 발견하게 되며 참된 하나님의 정신을 품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

추천/윤택곤 목사
(교육연구소부소장)

김창인목사 저서목록

설교집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400면 5,000원
- 칭찬 듣는 교회 423면 5,000원
- 절기 설교집 456면 5,800원
- 예식과 설교 516면 6,000원
- 시가서 설교집 388면 4,600원
- 이사야서 강해(1) 504면 6,000원
- 복음서 설교집 378면 4,800원
- 바울서신 설교집 426면 5,000원

직분자 교육용 교재

-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군 205면 2,200원

평신도를 위한 말씀시리즈

- 교회란 무엇인가 87면 700원
- 서로 사랑하자 70면 700원
- 성도의 시험 70면 700원
- 선교란 무엇인가 68면 700원
- 성도의 가정 87면 700원

근간 발행예정

- 예수님의 좋은 일군
- 이사야 강해(2)

선교지 소식

공동 기도제목

1.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영육이 강건하며,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
2. 선교교회의 안정과 부흥발전 및 선교사역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3. 현지인의 복음화와 개척교회의 설립 및 현지인 사역자의 훈련과 육성을 위해...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 정글, 오지 개척교회(현재 49 개처)를 60개처로 늘릴 계획
-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의 교인이 약 100~200명 출석중
- 할렐루야 회관 건물 증축을 위해 새로운 대지를 구입하여 등기 수속을 완료하고 새 종합 선교관 건축 준비중
- 서부 이리인자야 선교지를 위해 동역자를 물색중 본교회 율태곤 목사님이 당회에서 선교사로 결정됨.

일본(유병세 선교사)

- 황천·광미교회 등에서 예배 인도 및 병원환자, 의사, 간호원들에게 수시로 복음 전도.
- 교포전도, 노방전도를 수시로 실시.
- 이윤호 권사님이 부인 성경반 인도.
- 서울의 아시아 경기대회를 위하여 특별 기도회 가짐.

인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 성경 번역 및 전도지 소책자

성경배포 사업을 위하여 기도 부탁.

- 의료사업을 통한 복음 증기 위해 의약품, 간호원의 필요성 강조.

애굽(이준교 선교사)

- 동산토건 웨라톤 공사현장 예배, 포트 사이드 출장 예배 인도.
- 현지인 지방교회, 농촌교회 신학교 등에 지원금, 의류품, 장학금 전달.
- 현지인 복음주의 교단과 긴밀한 협력으로 선교사역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이집트 및 아프리카 특히 수단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초교파적인 전도협회 조직(이선교사께서 고문으로 사역하시게 됨)

이스라엘(김주경 선교사)

- 성지 연구소 법인체 설립을 위하여 미국 로스엔젤레스, 뉴욕 등지에서 성지 특별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 현재 진행중인 학업과 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기도 바램.

서독(육호기 선교사)

- 뉘츠부룩교회 여전도회에서 성미부를 신설하여 교회사업에 유용하게 사용.
- 뉘츠부룩교회 키팅겐 성도들을 위하여 버스 마련에 총력을 기울임.
- 하나우교회는 아프리카 선교의 일환으로 감비아 원주민을 위한 전도용 학용품들을 구입하여 보내고 있음.

서독(김성주 목사)

- 비스바덴교회의 안정과 사랑과 화합을 위하여 기도 바램.
- 계속적인 학업과 목회를 위하여 기도 바램.

벨기에(김성완 선교사)

- 로텔담, 안트워프 선원 선교교회의 성공적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 바램.
- 그동안 쉬었던 국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한글학교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자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작함.

파라과이 (김재창 선교사)

-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원 대지를 확보하고 월부로 땅값을 지불케 되어 감사함.
- 원주민 선교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이준호 성도께서 교회대지를 기증함.
- 공동의회시 안수집사 4명 선출.
- 87년도에 교회 교육과 신학교 교수를 겸할 수 있는 동역자를 원하던중 본교회 당회에서 안석렬 목사를 선교 동역자로 결정함.

칠레 (유재일 선교사)

- 새로이 시작될 개척교회 장소 임대를 위하여 특별기도 바랍니다.
- 9월 10일 칠레 어린이 전도 집회를 118명 참석한 가운데 해중 마침.
- 9월 21일 칠레 한인 연합교회에서 구제품을 수집하고 국제 주일로 지킴.
- 9월 23일 선교부의 산티아고

중앙교회 여전도회 협조로 교회지역 35명의 극빈자를 초청하여 예배 및 점심대접.

텔사 (강성진 목사)

- 현재 존낙스 미국인 교회를 빌려 예배중이므로 성전대지의 구입과 건축을 위하여 기도바람.
- 알칸사 스프링데일 한인교회가 성장하여 장소를 옮길예정.
- 9월 4일 미 오크라호마 동부교회 고시 위원회에서 강성진 목사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 통과시킴.

뉴욕 (박종만 목사)

- 한인교회의 모범적인 성장과 사랑의 화합을 위해 기도바람.
- 교민과 현지인 복음화를 위해 기도바람.

홍콩 (오치용 선교사)

- 한인교회의 목회및 교민복음화를 위해 기도 바람.
- 중공선교 기관과의 계속적인

유대관계 및 협력 선교와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 바람.

본부 소식

- 뉴욕 박종만 목사 사모의 자당어른께서 8월 28일 소천 사모님께서 일시 귀국하여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9월 6일 출국.
- 각 선교지에 전도용으로 큰 몫을 차지하는 87년도 신앙월력 인쇄하여 발송.
- 9월 22일 칠레 유재일 선교사 자당(김천옥 권사) 출국.
- 9월 28일(주일)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중인 인도네시아 선수단이 대예배 3부 예배에 참석(인도네시아 선교부에 끼친 공로로 당회장님께서 감사패 전달).
- 10월 3일 인도네시아 정소라 사모님과 현지에 커다란 도움을 준 빠라마르따장로 내외 출국.
- 10월 13일 임시당회에서 세계선교회 신임회장에 윤명식 장로 선임.

충현선교자료 및 선교에 관심있는 분을 찾습니다

1. 충현선교 자료를 찾습니다. 충현선교 18년 정리에 도움이 되고 의의를 갖게 될 각종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는 반환함)
2. 연말연시를 맞아 각선교지에 보낼 카드와 선물을 수집 합니다. (선교관 4층 세계 선교회)
3. 선교에 관심있는 분을 찾습니다. 각선교지를 위해 매주 오후 5시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슬라이드, 영화등을 통해 선교지를 배우고 익힘)

—선교지를 사랑하여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후원자가 됩시다—

충현세계선교회

교회소식

■ 당회장 김창인 목사 수도노회 부흥 전도 대성회에서 설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수도권회 전도부 주최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온땅에 복음의 빛을」이라는 주제로 왕십리 교회당에서 부흥전도 대성회가 있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첫째날 “장래가 있는 사람이 됩시다”(잠 24: 11~21) 둘째날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딤후 2: 1~13) 네째날 “참 자유를 누리려면”(고후 3: 17)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셨다.

■ 86 아세아 복음 대성회

86 아세아 복음 대성회가 9월 15일(월) 저녁 7시 광림 교회당에서 “성령의 불길을 온 아세아로”라는 주제로 그 막을 올렸다. 본 교회 당회장이시며 88 복음화 대성회 총재이신 김창인 목사는 개회사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힘있게 싸워 나가

는 빛의 사자가 되자고 전하였다.

또한 16일부터 18일까지 본 충현교회당에서 아세아 지도자 대회가 연인원 2,700여명(1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86년도 제4차 성례식

1986년도 제4차 성례식(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개종)문답이 지난 10월 9일(목) 10일(금) 양일간 있었다.

세례식은 10일(금) 오후 2시 유아세례식과 오후 7시 장년세례식, 2차례가 있었고 성례식 문답자는 학습 102명, 세례 118명, 유아세례 39명, 입교 15명 등 총 274명이다.

한편 성찬식은 10월 13일(월) 5부에 걸쳐 거행되었고 수찬자수는 5,385명 이었다.

■ 87년도 임직후보자 교육

87년도 임직후보자 교육 개강예배가 9월 16일 오후 7시 교육관 307호에서 있었다. 이번

후보자 교육에는 권사 59명 남집사 97명, 여집사 164명, 권찰 162명 총 482명이며 수료식은 11월 19일(수) 저녁 예배시에 거행될 예정이다.

■ 중등부 시와 찬양의 밤

중등부의 시와 찬양의 밤 행사가 지난 10월 25일(토) 오후 4시 본 교회당에서 있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여러 악기 연주와 시와 수필 기도문 낭독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특별순서로 연예인교회 김민식 집사의 간증시간도 있었다.

■ 고등부 특강

고등부에서는 지난 9월 28일(주) 오전 11시 교육관 517호실에서 「기독학생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홍치모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 청년부 정기총회

제18회 청년부 정기 총회가

9월 21일 교육관 414호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 결과 회장에는 손별식씨 부회장에는 민중기씨, 이현숙씨가 선출되었다.

■ 직전부 중추절 행사

9월 18일(목) 직전부에서는 추석에 고향을 찾지 못한 회원들을 위한 위로 및 친목을 위한 행사가 교사 11명 학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암산에서 김동렬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다.

■ 대학부 정기총회

대학부에서는 지난 9월 14일 오후 1시 교육관 514호실에서 열렸다. 102명이 참석한 총회 결과 회장에는 김상권씨, 부회장에는 박해정씨가 선출되었다.

■ 선교동역자 파송결정

10월 12일 임시당회에서 윤태근 목사를 인도네시아 선교동역자로 안석렬 목사를 파라과이 선교동역자로 파송기로 결정하였다.

■ 새 가정부 특강

새 가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9일, 26일 12시 선교관 102호실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교육」이란 주제로 지영은교수(성대 교육학)의 특강이 있었다.

■ 한나 에스더 여전도회 가을 신앙강좌

한나 에스더 여전도회에서는 가을 신앙강좌를 10월 7일(화) 10시 30분~12시 30분까지 가졌다. 강사에 윤영탁 목사님을 모시고 「종말과 여성도의 자세」란 제목으로 460명이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경북 청송 감호소 위문

제3남전도회(회장 오정수 장로)에서는 지난 10월 3일(금) 경북 청송에 있는 감호소에 떡과 앰프시설(값이 100여만 원)을 준비하여 감호소 전도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전하였다.

■ 사랑의 편지함 설치

전도위원회에서는 지하철 역삼역에 사랑의 편지함을 10월 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십대관, 청년관, 장년관, 교회 전도지 4가지를 항상 꽂아 놓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매일 새로운 내용으로 계속적인 편지 전도를 하고 있다.

■ 예식과 설교집 군목들에게 전달

전도위원회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군목과 현재 현역 복무중인 본교회 교우들에게 10월 국군의 날을 맞아서 목사님 설교책자를 전달했으며 본교단 군목 전원에게도 예식과 설교집을 보내 드리게 된다.

■ 제6차 목회 내조자 경건훈련

지난 9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북한선교 훈련원 시내산 기도원에서 “목회 내조자로서 지혜로운 내조를 위한 특별 훈련”이라는 주제로 경건훈련이 있었다. 초교파적으로 7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김창인 목사는 「참 자유를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 제6차 목회자 경건훈련

북한선교 훈련원에서 주최한 목회자 경건훈련이 지난 9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시내산 기도원에서 열렸다. 521명

이 등록한 훈련에 김창인 목사는 「땅에 머무는 동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그의 조준상목사, 박선희목사, 김국도목사, 김기태목사, 박종열목사, 정진경목사 등이 강사로 수고하였다.

■ 임원 지도자 훈련

북한선교원에서는 임원 지도자 수련회를 겸한 추계 축복성회가 9월 29일(월)부터 10월 3일(금)까지 임원, 지도자,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시내산 기도원에서 열렸다. 첫날 김창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군이 가져야 할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 추석 성묘 합동 예배

동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석 성묘 행사를 제1동산(200명)과 제2동산(550명)에서 성도와 유족친지가 모인 가운데 추석 성묘 합동예배를 드렸다.

또한 그동안 차량진입에 불편하였던 도로를 3m에서 4~5m로 확장 공사하여 차량진입에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 김성운 강도사 목사 안수식

소년부지도 김성운 강도사는 지난 10월 14일 제30회 수도노회(후암제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 김창인 목사 설교집 발행

출판국(국장: 조현명장로)에서는 지난 10월 14일 당회장 김창인 목사 저작전집 제 5권 「복음서 설교집」, 제 13권 「바울서신 설교집」을 발행하였다.

또한 강해집 제 1권인 「이사야 강해설교집」을 10월 31일에 발행하였다.

87년도 각 위원회 위원장 명단



이응선 장로
당회서기



한영철 목사
예배위원장



김창근 목사
찬양위원장



조영길 목사
교육위원장



김원남 목사
구역권찰위원장



이양우 목사
전도위원장



윤명식 장로
세계선교위원장



오진국 장로
북한선교위원장



박치민 장로
봉사위원장



최석주 장로
재정위원장



윤종성 장로
자산관리위원장



임광식 장로
건축위원장



정석태 장로
수양관관리위원장



김차생 장로
출판국장



이태규 장로
사무국장



김영개 장로
감사위원장



이응선 장로
인사위원장



이영세 장로
장학위원장



우기전 장로
유치위원장



신현상 장로
재단법인총현동산관리위원장

1987년도 주일학교 지도부장단 명단

구분 부별	교 역 자		부 장	부 감	
	지 도	부 지 도		남	여
1. 영 아 부	정 소 영		정 광 호	김 상 규	한 경 숙
2. 유 치 부	정 연 희	김 정 자	엄 필 성	김 상 덕	이 경 현
3. 유 년 부	김 연 이		남 선 우	양 종 섭	명 정 옥
4. 초 등 부	남 창 우		송 기 홍	한 송 규	김 정 자
5. 소 년 부	김 성 윤		이 병 학	노 문 환	배 옥 인
6. 중 등 부	이 원 길		노 광 현	임 무 천	지 경 애
7. 고 등 부	김 익 경		김 광 신	김 환 기	공 향 조
8. 대 학 부	박 희 석		정 하 우	황 의 만	안 춘 진
9. 청 년 부	김 성 수		오 태 희	손 경 수	손 명 순
10. 장년 2 부	이 성 근		강 순 용	이 욱	백 죽 심
11. 장년 1 부	김 희 보	윤 용 규	우 기 진	박 영 식	이 신 일
12. 소 망 부	김 창 근	김 정 순	강 모 용	김 재 명	김 정 옥
13. 직 전 부	김 동 렬	장 해 순	오 정 현	김 인 관	임 옥 순
14. 새가정부	윤 영 탁		박 승 준	원 응 철	안 인 현
15. 새신자부	구 명 신		이 영 세	김 대 호	최 란 수
16. 세 레 부	한 영 철		최 무 길	황 영 일	윤 재 춘

처음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신자부는

- 처음 믿으시는 분(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아주 유익하고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 부득이한 시간 사정으로 새신자부에 참석치 못하는 분은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교육시간은 매주일 3부(10시 30분) 예배후(12시)에 본당 103호실에서 6개월간 공부합니다. 이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은 학습을 받게 됩니다.
- 저희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일에 새 신자부에서 만나 뵈게 될 것을 바랍니다.

충현교회 새신자부

교 우 동 정

새 교 우

잠원구역	김금자	하월곡	김진순	논현구역	곽노경	이태원	손옥순	봉천구역	정현순
논현구역	문한중	사당구역	황국희	신월구역	김동래	신당구역	오경아	구로구역	문래도
성수구역	최현선	신당구역	김현숙	사당구역	정경혜	역삼구역	김경숙	등촌구역	김혜영
목정구역	정봉운	영곡구역	김영애	역삼구역	김시중	압구정	김금자	신당구역	김덕순
종암구역	이영미	광희구역	박금자	옥수구역	오인순	논현구역	유진순	이태원	이종연
신당구역	이경현	면목구역	한영인	논현구역	박영미	봉천구역	주정자	태평구역	김순옥
용두구역	양순덕	마장구역	서남례	면목구역	이선옥	개봉구역	장요성	남양주	정재순
쌍문구역	박순옥	역삼구역	이인규	개포구역	이정자	성내구역	황경순	논현구역	김상희
보광구역	오영주	청파구역	하인호	역삼구역	여상애	신당구역	이정민	상도구역	박순례
논현구역	윤정순	부천구역	홍기욱	역삼구역	강철순	서빙고	한중호	구로구역	임동재
이태원	김재호	개포구역	김영애	마장구역	김충선	성남구역	이경수	삼선구역	김정순
개포구역	정정금	구의구역	장영례	충신구역	유영진	반포구역	김영자	잠실구역	김상자
면목구역	엄기정	염리구역	김희자	동소문	이윤일	개포구역	정태순	역삼구역	이태상
서초구역	강수분	봉천구역	윤종실	잠실구역	원춘길	상도구역	최상복	역삼구역	김병순
도곡구역	류승희	논현구역	심정순	개포구역	류시현	오류구역	장봉선	논현구역	김재현
부천구역	홍기욱	삼성구역	조규대	방화구역	김진순	성내구역	황길호	봉천구역	성지현
석촌구역	권정미	신당구역	서병천	용두구역	최난숙	신당구역	주정애	구로구역	권애란
잠실구역	홍주의	역삼구역	박영란	자양구역	홍성희	역삼구역	이향자	미아구역	이명인
신월구역	정남숙	울지로	김금순	논현구역	김창심	서초구역	유정수	행당구역	박애란
금호구역	임우경	사근구역	박선옥	청담구역	이윤경	대치구역	이선향	역삼구역	박숙희
면목구역	정 옥	송덕구역	임미경	역삼구역	윤지영	개포구역	허해진	역삼구역	홍영숙
서초구역	황보국자	개포구역	이정신	개포구역	김상호	방배구역	임종미	논현구역	조청자
신림구역	허선자	삼성구역	윤경희	일원구역	신영자	신월구역	김선숙	논현구역	우호연
사당구역	오명자	역삼구역	노완희	봉천구역	김홍열	신수구역	조정란	상도구역	김도성
개포구역	최정희	송파구역	한정현	면목구역	김종래	신당구역	박연순	풍납구역	유진순
신당구역	장복임	송파구역	한상문	옥수구역	이복자	황학구역	진성경	자양구역	정광란
대치구역	최춘석	일원구역	최은영	압구정	압구정	역삼구역	박인순	하왕구역	이덕순
사당구역	이수경	논현구역	이선희	서초구역	이복경	논현구역	유정희	역삼구역	이하연
천호구역	편마리아	오류구역	여승구	개포구역	민혜숙	논현구역	김백임	역삼구역	이지해
신림구역	박홍실	잠실구역	백경숙	성내구역	신창호	방배구역	이종렬	역삼구역	양영자
신대방	권희정	역삼구역	노명희	봉천구역	김영화	신월구역	심말림	역삼구역	유인선
상도구역	한석수	송파구역	손순애	봉천구역	김상민	창신구역	장선미	신사구역	서만애
개포구역	안행자	송파구역	한상필	천호구역	최미경	장위구역	김홍봉	고덕구역	박영심
역삼구역	남춘자	일원구역	박주영	삼전구역	이장옥	둔촌구역	김형남	하왕구역	정숙미
청담구역	설옥경	역삼구역	최은미	일원구역	박희숙	황학구역	이태화	고덕구역	이금례
자양구역	유정상	오류구역	박옥란	길동구역	조기호	역삼구역	강혜경	역삼구역	정희순
자양구역	이경자	도곡구역	고진숙	서초구역	오세웅	논현구역	유순화	역삼구역	이지민
역삼구역	최정광	역삼구역	김정금	고덕구역	차종열	대치구역	강순선	논현구역	김옥현
남가좌	박경애	송파구역	한수정	신천구역	김정희	방배구역	김기용	논현구역	우호연
봉천구역	김은선	논현구역	김선엽	서초구역	류정열	신월구역	유영길	방이구역	장옥경
신당구역	이희옥	사당구역	강대심	성남구역	정도숙	동송구역	박미연	마장구역	이덕조
대치구역	박해숙	행당구역	이해경	압구정	김명석	경기구역	남상균	자양구역	배명자
용담구역	이영희	예관구역	장진희	신사구역	우혜숙	한남구역	조의관		
성남구역	신창순	천호구역	박동호	봉천구역	손장원	태평구역	김현실		
울지로	김은하	돈암구역	이정화	상도구역	신명순	서초구역	이희자		
역삼구역	윤혜경	신사구역	임철우	신천구역	김복순	도곡구역	최상호		

결

혼

▲강철해군(강중심집사 전인 화권사 아들) 8월 21일 12시
 ▲정관석군(정동훈집사 이희 원권사 아들)과 김현숙양(공영 회씨 딸) 8월 22일 12시
 ▲송창배군과 임미숙양(이태 원 1구역 이기분집사 딸) 9월 6 일 오후 1시 30분
 ▲정관철군과 조순숙양(조영 문집사 딸) 9월 9일 12시 30분
 ▲장은배군과 박경애양(강옥 자집사 딸) 9월 13일 오후 2시
 ▲이종국군과 장형운양(장석 환집사 딸 이길남권사 손녀) 9월 10일 오후 1시
 ▲김삼겸군(전계화권사 아들) 과 노민희양 9월 13일 오후 1시
 ▲조창호군(오춘실집사 아들) 과 오순일양 9월 27일 오후 1시
 ▲임동재군(유근임성도 아들) 과 권애란양 9월 27일 오후 1시
 ▲김창영군과 박강순양(김복 연집사 딸) 9월 30일 오후 1시
 ▲송병렬군(초등부 교사)과 도승애양 10월 1일 오전 11시
 ▲전대선군(경순영집사 아들) 과 이향숙양 10월 1일 오후 2시
 ▲김형삼군과 이미라양(이기 곤 김순자 집사 딸) 10월 1일 12시
 ▲김옥진군과 오근영양(오정 일성도 김순옥집사 딸) 10월 1 일 오후 3시
 ▲김주현군(9교구)과 오지현 양(10월 3일 오전 11시 30분
 ▲이경원양(이응집사 손녀) 10월 3일 12시
 ▲김재경군(장위구역 은필순 성도 아들)과 양은주양(청년부 회원) 10월 3일 오후 2시
 ▲예종호군(예종백성도 김순 배집사 아들)과 안정숙양(서계 실집사 딸 소년부 교사) 10월

4일 오후 1시

▲신양섭군(조분자집사 아들) 과 김경희양 10월 4일 오후 2 시

▲김중철군과 한지현양(한관 수성도 김정자집사 딸) 10월 7 일 오후 1시

▲박성관군(박홍오집사 김정 덕권사 아들)과 박은영양 10월 9일 오후 1시

▲라충희군(교문구역)과 박 영희양(도농구역 김우순 성도 딸 소년부 교사) 10월 9일 오후 1시 20분

▲이정남군(유화자집사 아들) 과 홍영유양 10월 9일 오후 2시

▲김기용군(방배8구역)과 임 종미양 10월 9일 오후 1시

▲김원조군(김영설성도 강보 현성도 아들)과 민범식양 10월 11일 오후 1시

▲이상석군(청년부 회원)과 김성옥양(김원남목사 딸) 10월 16일 오후 1시

▲이규환군과 이경희양(유년 부 교사 응봉구역 김영순성도 의 딸) 10월 17일 오후 2시

▲장정철군과 박현숙양(박운 영씨 이춘자집사 딸) 10월 18 일 12시

▲안창호군과 김선혜양(김광 울집사 장수정권사 딸) 10월 18일 오후 1시

▲최승철군(최임상집사 신명 희권사 아들)과 이경은양 10 월 18일 오후 2시 30분

▲김성기군과 박현선양(제 3 찬양대원) 10월 25일 오후 2시

▲서승호군(거여구역 김정자 집사 아들)과 유미양 10월 25 일 오후 3시 30분

▲최경식군과 김명신양(김순 용씨 김용순집사 딸) 10월 25 일 오후 2시

▶박상유(이명용권찰 아들) 10월 25일 오후 1시

별

세

▶신봉천씨(신당5구역 한보 부집사 부군) 8월 11일 별세

▲우기봉집사(우중근씨 우점 옥집사 부친 김성동집사 장인 이은선권찰 시부) 8월 14일 별 세

▲박창성씨(과천 3 구역 강창 회씨 부군) 8월 13일 별세

▲최연주권사(송인홍집사 부 인) 8월 19일 별세

▲천태혁집사(장위 3 구역 전 광숙집사 부군) 8월 21일 별세

▲이종예씨(당산 2 구역 유병 세집사 모친) 8월 25일 별세

▲이명자권사(등촌구역 유석 홍집사 부인) 8월 26일 별세

▲김계희(테헤란 2구역) 8월 26일 별세

▲문익환씨(문영규집사 부친 9월 3일 별세

▲윤종현씨(미도 2 구역) 9월 8일 별세

▲여신봉씨(오류구역 여증녀 씨 부친) 9월 11일 별세

▲배화순성도(오점택권찰 모 친) 9월 24일 별세

▲이갑세성도(윤옥자집사 부 군) 9월 25일 별세

▲전희문장로(전은배, 전성자 전현신, 전성실집사 부친) 10월 8일 별세

▲김원주씨(비산구역) 10월 6일 별세

▲조태호씨(삼익구역) 10월 13일 별세

▲정태옥씨(사당 1 구역 홍정 해집사 부인) 10월 14일 별세

▲정연천씨(서동석집사 모친) 10월 11일 별세

▲신매례씨(옥차남집사 모친) 10월 11일 별세



9·10월의 행사



□ 당회

10월 3일/9월 정기당회
10월 9일/김창인목사 출판기념예배
10월 12일/임시당회
10월 31일/10월 정기당회

□ 제직회

9월 7일/9월 정기제직회
10월 5일/10월 정기제직회

□ 예배 위원회

10월 12일/성례식

□ 구역권찰회

9월 7일/교구 간사협의회
10월 5일/교구 간사협의회
10월 21일/임시 간사협의회

□ 전도위원회

10월 3일/청송감호소 전도

10월 7일/하나에스더 여전도회 신

앙강좌

10월 21일/경찰의 날 위로행사

□ 북한선교위원회

9월 1일~5일/제6차 목회 내조자

경건훈련

9월 14일/구국연합기도회

9월 22일~26일/제6차 목회자 경

건 훈련

□ 출판국

10월 14일/복음서 설교집

10월 14일/바울서신 설교집

10월 31일/이사야 강해 설교집 (I)

□ 감사위원회

9월 7일/각부회계감사

9월 14일/각부회계감사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예식과 설교 출판 기념 감사예배가 있었던 달이었다. 당회장 목사의 목회의 결산이라고 할 만한 예식과 설교의 출간은 교제와 많은 목회자들에게 커다란 선물이자 할 수 있겠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 나 할것없이 피로에 지쳐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다. 충현교회 내부에 붙어있는 무질서한 광고물(?)들을 안팎으로 깨끗하게 정돈 계시가 된다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번 호에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예식과 설교 출판기념 감사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그날의 행사를 특집으로 그대로 지면에 실었다.

○...충현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성의, 협조의 아쉬움을 편집때마다 느끼게 된다. 좋은 신앙 간증이나 수필 생각 및 글들을 투고하여 독자란을 더 풍부하게 채워 주었으면 한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충현

1986년 9·10월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창간
1986년 11월 5일 인	인쇄
1986년 11월 8일 발	행
발행인/김창인	창인
편집인/조현명	명
주간/이성근	근
편집장/김차생	생
편집위원/김원남	남
조영길	길
김장근	근
이응선	선
조순경	경
조수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62-418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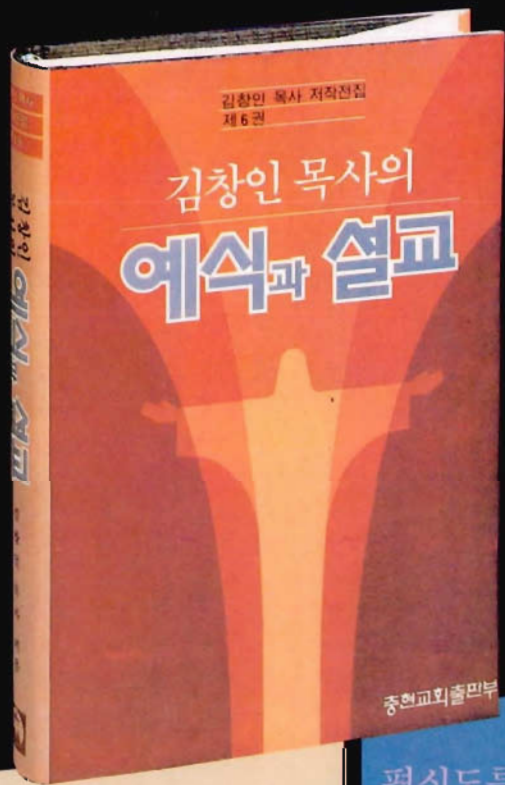
50여년
의
경험

김창인 목사의 예식과 설교

기독교 예식의
지침서!

50여년의 목회현장의 결정체
예식진행의 친절한 안내와 설교를
체계화하여 누구나 쉽게 참고하여
활용토록 꾸민 친절한 예식 안내서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
신학생 필독서로서 최고의 선물.

충현교회 당회장
북한선교원 이사장
성서공회 이사장
86.88세계복음화대회 총재
세계 C. E. 명예 대회장



205면
값 2,200원



388면
값 4,600원



400면
값 5,000원



423면
값 5,000원



458면
값 5,800원



평신도를 위한
말씀시리즈

- 교회란 무엇인가
- 서로 사랑하자
- 성도의 시험
- 선교란 무엇인가
- 성도의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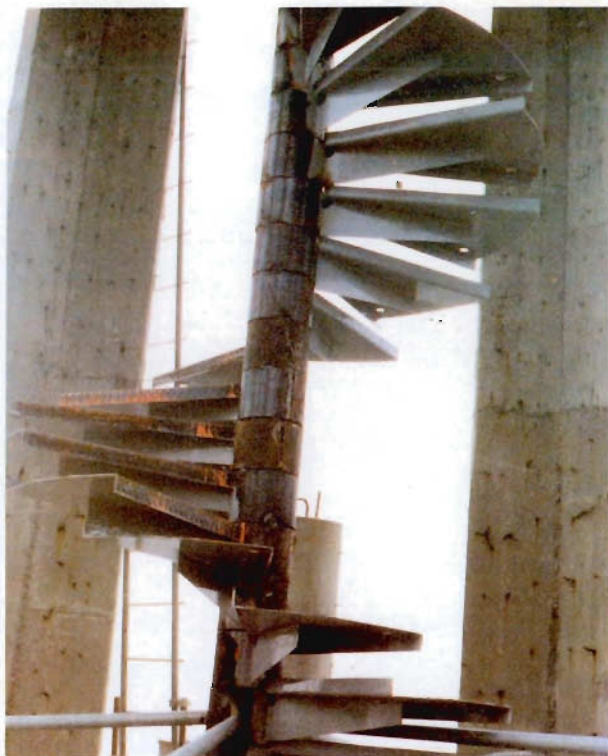
발행 : 충현교회출판부

총판/엠마오서적/전화593-0810~3/135서울 강남구 반포동 402/반포쇼핑타운4동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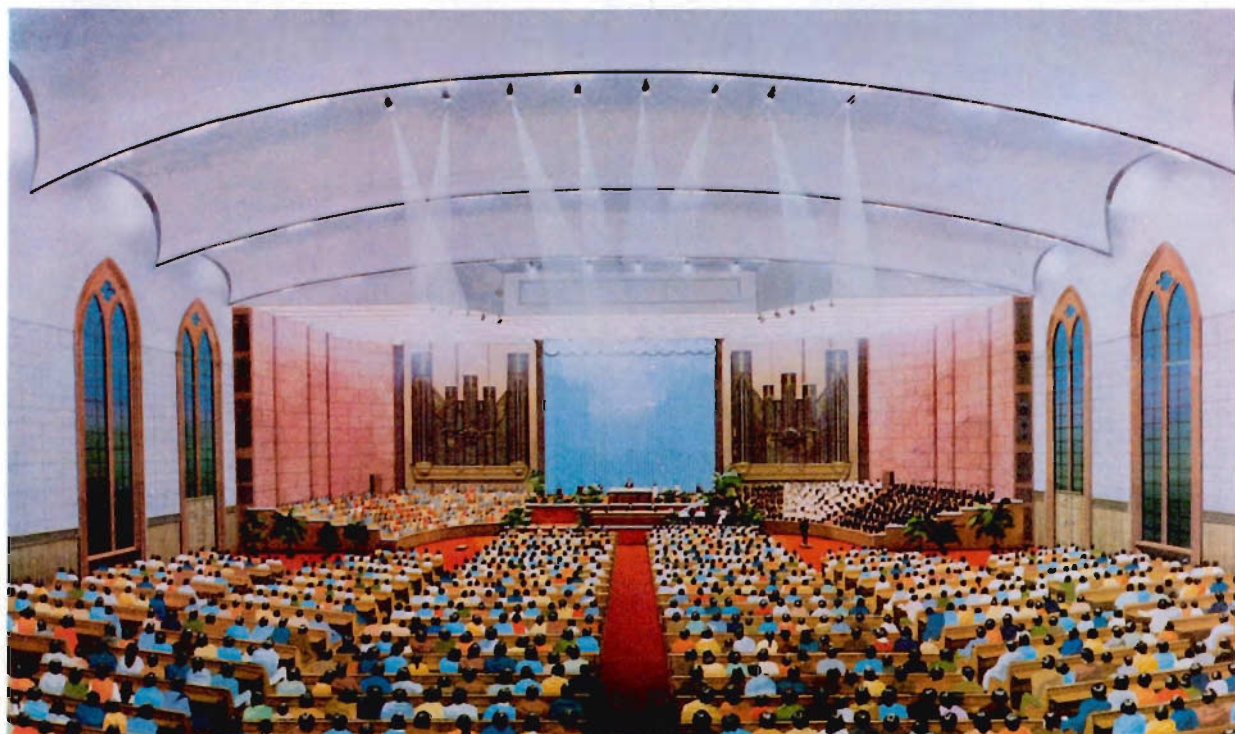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약속과 축복의 현장



▲ 종탑 외장 동판 공사



▲ 내부 원형 계단



▲ 본당 내부 투시도